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지역학 석사학위논문

이민과 국경: 국제이민을 통해 본 멕시코 국경의 특수성

지도교수 임 상 래

2014년 8월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 로 벌 지 역 학 과

김 민 경

지역학 석사학위논문

이민과 국경: 국제이민을 통해 본 멕시코 국경의 특수성

지도교수 임 상 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 로 벌 지 역 학 과

김 민 경

Collection @ pufs

이 논문을 김민경의 지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2014년 6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dCollection @ pufs

목 차

Ⅰ. 서론 ····· 1

1.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1
1.2.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 4

Ⅱ. 국경의 개념과 이해 ····· 6

2.1 국경의 의미 ····· 6
2.2 세계화와 국경의 통제 ····· 8
2.3 라틴아메리카 국경 ····· 11

Ⅲ. 멕시코 국경 개관 ····· 17

3.1 멕시코 국경의 형성과정 ····· 17
3.2 멕시코 국경의 지리적 성격 ····· 21
3.2.1 북부 국경지역 ····· 22
3.2.2 남부 국경지역 ····· 26
3.3 멕시코 국경문제 ····· 32

Ⅳ. 멕시코 국경과 이민 ····· 40

4.1 국경을 통한 이민의 역사와 유형 ····· 40
4.2 남부 주요 국경도시 ····· 45
4.3 북부 주요 국경도시 ····· 49

dCollection @ pufs

4.4 국경의 통과지점과 통과이민 경로 ····· 51

Ⅴ. 이민과 국경의 변화 ····· 56

5.1 국경통제와 보안 ····· 56
5.1.1 불법이민자 통제 ····· 56
5.1.2 국경보안과 협력 ····· 60
5.2 국경의 위험 ····· 63
5.2.1 국경통과의 위험 증가 ····· 63
5.2.2 마약조직과 불법이민자와의 관계 ····· 71
5.3 이민자 인권문제 ····· 73
5.4 국경도시의 변화 ····· 77

Ⅵ. 결론 ····· 83

참고문헌 ····· 88

(Abstract) ····· 97

dCollection @ pufs

표 목 차

[표 1] 1980년 이후 북부국경지역 전체인구 ····· 24
[표 2] 1980년 이후 남부국경지역 전체인구 ····· 29
[표 3] 치아빠스 원주민언어 사용 비율 ····· 30
[표 4] 2011년 중앙아메리카 불법이민자들의 멕시코 남부국경 통과 방법 · 63
[표 5] 국가별 불법이민자 목적지 설문조사 ····· 81

그 림 목 차

[그림 1] 멕시코 지도 ····· 21
[그림 2] 멕시코 북부국경지역 ····· 22
[그림 3] 멕시코 북부국경지역 6개주와 무니시삐오(municipio) ····· 23
[그림 4] 남부국경지역 ····· 26
[그림 5] 멕시코 남부 국제하천 ····· 27
[그림 6] 멕시코-벨리즈 국경 ····· 32
[그림 7] 남부국경지역 주요도시 ····· 45
[그림 8] 남부국경지역 치아빠스(Chiapas) ····· 46
[그림 9] 북부국경지역 주요도시 ····· 49
[그림 10] 멕시코 남부국경의 공식 통과 지점 ····· 51
[그림 11] 멕시코 치아빠스와 과테말라 접경도시 ····· 52
[그림 12] 통과이민 경로 ····· 54

dCollection @ pufs

Ⅰ. 서 론

1.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멕시코는 북쪽으로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과테말라, 벨리즈와 인접해 있다. 따라서 멕시코의 국경은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를 연결하고 있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멕시코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민, 나가는 이민, 통과하는 이민 3가지 이민유형이 모두 발생하는 국가이다.

그동안 국경연구에 있어 멕시코 북부국경은 흥미로운 사례로 여겨져 왔다. 그 이유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성격 때문이었다. 즉 북부국경지역은 미국의 앵글로색슨 문화와 멕시코의 라틴아메리카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마낄라도라(Maquiladora)산업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국경 간 교류와 협력 및 경제가 발달한 공간, 국경지역 거주자들의 일상적인 이동 외에도 멕시코인들의 대규모 미국이민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써 “경계라는 담론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박정원 2009:24)” 국경 이었다.

반면에 멕시코 남부국경은 북부국경에 비해 다소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었다. 남부국경지역은 인접해있는 과테말라와 역사적으로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 다양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빈곤율이 높고 차별이 심하다. 주요산업은 농·목축업으로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부국경지역에 비해 도시발달과 인구비율이 낮다. 그러나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역외이민의 큰 흐름은 미국을 향하고 있고, 최근 많은 중앙아메리카인들이 미국으로 가기위해 멕시코의 남부국경을 통과하면서 이 지역은 새로운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인들의 미국이민은 멕시코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멕시코인들은 1942년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o Program)’[1]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1)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멕시코인들이 합법적인 미국 노동이민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

dCollection @ pufs

참전한 미국의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대신했다. 그 이후로 많은 멕시코인들은 북부국경을 통해 합법적·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 이민을 갔다. 북부국경은 미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멕시코인들의 미국이민이 일어나는 공간이었다. 남부국경지역은 1880년대 이후 치아빠스(Chiapas) 커피산업이 발달하면서 과테말라인들의 일시적인 농업노동이민,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내전으로 인한 이민 등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이주가 발생하는 공간이었다. 이렇듯 과거 멕시코 북부국경은 멕시코인들이 미국 노동이민을 나가는 공간, 남부국경은 중앙아메리카인들이 이민을 들어오는 공간으로 두 국경지역은 각기 다른 이민현상이 일어나는 분리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인들의 미국이민은 멕시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인들은 미국으로 가기위해 멕시코의 남부국경을 넘고 멕시코의 영토를 통과하는 경로를 이용해 다시 북부국경까지 간다. 이처럼 멕시코의 양 국경은 이동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더 이상 지리적으로 무관한 지역이 아니게 되었다.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이민자들은 두 국경을 연결하고 있고, 이들로 인해 멕시코의 국경지역은 변화하고 있다.

멕시코의 남부국경은 공식적인 통과지점 외에도 불법으로 건널 수 있는 70여개의 비공식 국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국경을 통해 불법 마약·무기, 불법이민자들이 통과하고, 다시 미국과 접경하고 있는 북부국경을 넘는다.

이러한 이유들로 미국의 국경통제는 미국-멕시코 국경에만 한정되고 있지 않다. 중앙아메리카인들의 멕시코를 통한 미국 불법이민은, 미국의 국경통제를 멕시코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까지 미치게 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후 미국은 국가안보 및 국경통제를 강화시키기 시작했고, 이것은 멕시코 국경관리문제로 연결되었다. 미국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멕시코 남부국경의 보안문제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여겼다. 따라서 미국은 멕시코 남부국경의 보안 관리를 미국-멕시코 국경 보안문제로 연결시켜 통제하려고 노력해왔다. 멕시코 국경을 지나 미국으로 가려는 불법이민자들이 더 증가

이다. 'bracero'란 'brazo(팔 즉 노동)'에서 파생된 말로 어원적으로는 '일급 막노동꾼'을 의미하나 멕시코에서 '일시 이주 노동자'를 지칭한다. 임상래, 라티노와 아메리카 (이담 Books, 2013), p.58

dCollection @ pufs

할수록 미국의 국경 통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3년 6월 미국의 상·하원을 통과한 새 이민법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미국 간 국경 순찰대를 21,000명에서 42,000명으로 2배 늘리고, 1,100km의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무인비행기 및 기술장비들을 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2)]

멕시코는 2001년 '남부계획(Plan Sur)'[3)]을 시작으로 남부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멕시코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부국경이 1990년대부터 중앙아메리카인들이 들어오고, 통과하는 국제적인 공간임을 인식하였다. 멕시코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또는 국경지역이 더 위험해지면서 과테말라·벨리즈와 남부국경을 통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국경통제가 강화될수록 이민자들은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위험한 경로를 이용하거나, 국경통과를 도와줄 가이드가 필요해졌다. 또한 멕시코 국경지역은 과거부터 마약·무기의 이동, 범죄조직, 폭력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최근 국경지역에서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범죄와 폭력이 더욱 증가했고, 그로 인한 이민자들의 인권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멕시코 국경에서의 이민현상은 일상이며 국가가 이민흐름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

'이민의 대륙'인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멕시코는 이민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이다. 과거부터 국경을 통해서 이뤄진 멕시코의 이민유형은 점점 변화해 왔다. 이민자의 유형도 여성, 어린아이들, 가족단위까지 확대되었다. 이민·이민자의 유형이 변화하면서 이들이 이동하는 국경과 국경지역도 변화한다. 이러한 배경들 때문에 멕시코 국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민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국제이민, 특히 미국으로 가는 통과이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멕시코 국경지역의 변화를 분석하고, 멕시코 국경만의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현재 멕시코 국경이 가지는 모습은 무엇이며, 그 의의는

---

2)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3/06/130617_ultnot_eeuu_reforma_migratoria_senado_seguridad_jg.shtml(검색일자: 2013.06.28)

3) 멕시코 남부국경지역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요이민경로를 폐쇄하여 문서를 갖추지 않은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을 제지하고자 하였다.

dCollection @ pufs

무엇인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앞서 밝힌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이민자들이 통과하고 이동하는 국경이다.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남부국경지역의 주요통과지점, 이민현상이 일어나는 양 국경도시들, 미국으로 가는 통과이민 경로 등을 분석한다. 둘째, 국제이민, 특히 통과이민현상으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는 국경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국경과 불법이민자 통제, 국경의 위험증가, 이민자 인권문제, 국경도시의 변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룬다.

본 논문은 이민자들이 이동하고 연결하는 멕시코의 양 국경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제이민으로 인한 멕시코 국경의 역사적 의미와 국경의 변천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국경의 '멕시코적인 성격'을 찾아내는데 그 의의를 둔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에 의한 방식이다. 또한 이민과 국경에 관련된 연구기관인 '멕시코 국립이민청(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INM)', '멕시코 국경이민에 관한 설문조사(Encuestas sobre Migración en las Fronteras Norte y Sur de México, EMIF)', 멕시코 국경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멕시코 지리통계청(El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s y Geografía, INEGI)'등을 참고하였다. 이민으로 인한 국경지역의 최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경지역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참고하였다. 참고한 기사자료 출처는 주로 '국경의 목소리(La voz de la frontera)', 'BBC 세계(BBC mundo)', '보도자(INFORMADOR)' 등 관련 주요 일간지이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 국경의 개념과 이해에서는 국경의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하였다.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물

Collection @ pufs

자와 인간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국경이란 경계를 무너뜨리고, 국가가 국경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루었다. 또한 이 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국가 형성과 국경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멕시코 국경을 개괄할 것이다. 멕시코 독립 이후 국경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멕시코 국경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와 인접국들 간의 국경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다룰 것이다.

4장에서는 멕시코의 국경과 이민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먼저 국경을 통한 멕시코 이민의 역사와 유형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북부국경은 미국으로 나가는 이민, 남부국경은 들어오는 이민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국으로 가기위한 통과이민을 설명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이민경로가 되고 있는 멕시코 국경지역을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따라서 국경의 통과지점, 이민현상이 일어나는 국경의 주요도시들, 멕시코 영토를 지나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경로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이민현상으로 인해 멕시코 국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멕시코의 이민자 통제와 국경의 보안과 협력, 국경의 범죄문제와 위험증가, 그로 인한 이민자 인권문제, 이민현상으로 인한 국경도시의 변화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6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멕시코 국경의 성격에 대해 언급해야 할 사실들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제이민 현상으로 나타나는 멕시코 국경만의 특수성을 밝힐 것이다.

dCollection @ pufs

Ⅱ. 국경의 개념과 이해

2.1 국경의 의미

국경이란 단어의 개념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이다. 또한 "국경의 의미는 경계, 분리, 한계, 끝, 가장자리, 장벽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Ricard Zapata-Barrero 2012:44)" 이는 민족 집단 안에서 이해되는 개념들이다.

국경이라는 개념이 현실문제의 정치적 언어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이다. 19세기는 '근대국가 질서'로 상징되어 왔으며, 근대국가는 '국민국가' 체제로 표상되기도 한다. 또한 국경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논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도 금세기 초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국경이란 낱말은 국민국가 질서 이후의 실용적 일상어이고 또한 학문어이며 정치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김홍철 1997:29-30).

국민국가는 시민권과 함께 프랑스 혁명 이후에 보편화된 개념인데,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프랑스 국경안의 모든 사람들은 시민이라는 하나의 신분으로 통일되었다. 혁명 이후부터 프랑스 국경 밖의 외국인은 시민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시민과 이에 기초한 공화국의 개념은 나폴레옹의 군대와 민법체계를 통해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20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가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개념이 되었다(김남국 2005:157).

Ricard Zapata-Barrero(2012:44-47)에 따르면 국경의 일반적인 의미는 테두리, 경계, 구분선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경은 '움직임의 경계'이다. 인간의 사회조직은 영토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국경은 '자신을 인식하는 경계'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경이라는 분리된 경계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삶의 국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경의 가장 고전적인 의미는 지정학적인 의미로 설정된 정치적인 영토이다. 이 경계는 '법적 선'이며, 국가들의 '영토 전쟁'을 불러오기도 한다. 국경은 바다, 산, 강 등의 자연으로 설정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합의, 계약, 평화조약, 정복 등으로

dCollection @ pufs

생성되는 인위적인 것이기도 하다.

국경의 유형을 다양한 형태와 원인으로 나눠보면 산맥이나 하천 등의 경우처럼 자연적 분계선을 이루는 형태, 문화적 차이를 경계나 분리의 근거·기준으로 삼고 국경이 설정된 특수 형태, 역사적이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국경은 외교적 교섭·중재·국제 재정 심판·주민투표 등에 의해 설정되거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할당 배치 될 수도 있으며, 구매나 전쟁을 통해서 양도나 할양할 수 있다(김홍철 1997:.29-33).

이렇듯 국경이란 “한 국가의 영토적 관할·지배권이 행사되는 한계범역(김홍철 1997:32)”을 말하는데, 이 안에서 국가의 주권이 행사된다. 국가의 주권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인 1648년 ‘베스트팔렌(Westfalen)조약’[4]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Ricard Zapata-Barrero, 2012:43). 국경과 주권의 개념이 설정된 이후 국경은 국가의 군사문제와도 연결된다. 김홍철(1997:30)은 국경의 제 문제가 근대 이후의 세계정치사·전쟁사·군사사 및 세계 외교사의 변혁 전개 과정에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친 본질 과제라고 하였으며, Ricard Zapata-Barrero(2012:44) 또한 국경의 어원은 군사에 기초하고 있고, 국경은 ‘군사 전선’이라고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경의 제 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일반 지리학 사상이나 정치지리학의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학 분야에 있어서 비상한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김홍철 1997:52).

정치적인 국경의 의미는 1990년대 초에 재정의 되었다. 이 시기에는 중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권위주의체제 몰락 이후 상당한 정치·경제적 변화가

4)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은 근대국가성의 법적 기초와 함축적으로 근대 세계정치의 근본적 규칙 또는 헌법을 확립했다. 이 합의는 이후 4세기 동안 근대 세계질서의 규범적 구조 또는 헌법을 형성했다. 베스트팔렌 합의의 핵심에는 유럽의 통치자들 사이에 ‘외부 간섭 없이 자기 영토 내를 다스릴 수 있는 각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시간을 거치면서 이것은 주권국가성의 원칙으로 성문화 되었다. 그러나 지구적 제국들이 붕괴한 20세기에 와서야 주권국가성과 민족자결주의가 세계정치의 보편적인 조직 원칙의 지위를 획득했다. 베스트팔렌 주권은 최고의 법적·정치적 권리를 영토적으로 제한된 국가에게 찾아주었다. 주권은 제한된 영토 내에서 배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최고의 통치에 대한 정당한 자격을 포함한다.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퍼트리샤 오언스(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을유문화사, 2005), pp.36-37

dCollection @ pufs

있었고, 유럽연합(EU)은 확대되고 심화 되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북미·남미·안데스 각 지역이 통합하고 발전하였다. 또한 무역과 통신의 속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시장에서 지정학적 변화의 영향은 국경을 재개념화 하게 하였다. 따라서 정치국경 연구자들은 국경·경계를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국경지대(Zonafronterizas)' '국경지역(regiones fronterizas)'으로 변경하였다(Harlan Koff, 2008:1).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홍철(1997:49-50)은 국경을 하나의 막연한 추상개념이 아닌 '국경지대'라는 실제적 현실로 간주하였다. 오늘날 국경과 관련된 논쟁은 변화의 과정에 있다. Ricardo Zapata-Barrero(2012:40)는 영토는 더 이상 지리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선'으로만 인식되지 않으며, 정치·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현실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Harlan Koff(2008)는 최근의 국경연구는 국경의 동일성, 국경시장의 팽창, 국경사회의 발달, 정치적인 국경기구 및 제도의 설립·개설 등을 조사한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김홍철(1997:50)은 '국경의 독창성(the originality of international boundary)'이란 개념설정을 언급하며, 각 국경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 국경의 원형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국경은 국민국가가 출현한 이후, 민족 집단 내에서 국가와 국가를 분리하는 경계의 개념임을 살펴보았다. 국경은 정치적 용어이며, 법적인 선으로 분리되어 있다. 국경으로 분리된 영토 안에서 국가의 시민이 살고 있으며, 국가의 주권이 행사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가 정치·사회적으로 계속 변화하면서 국경의 개념 및 국경에 관한 문제도 함께 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국경의 개념은 단순한 경계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의 '국경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2 세계화와 국경의 통제

국가는 국경을 통제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화시대의 국경은 물자, 재화, 사람들이 법으로 설정되어진 경계를 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다.

Collection @ pufs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수십 년간에 걸쳐 일상생활, 국가기구, 세계정치의 모습을 변화시켜 왔다. 세계화라고 불리는 추세는 근대 국민국가의 전통적인 통치방식을 위협해 왔다(민병원 2006:5).

Ricard Zapata-Barrero(2012:44)는 오늘날의 우리는 여전히 국가주권의 원칙인 베스트팔렌 시기에 있다고 말 할 수 있지만, 국가가 국가주권과 합법성의 일부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 과정의 징표는 국경통제 상실을 통해서 국가주권 상실이 표현되는 것이다.

"러기(John G. Ruggie)는 주권이 쇠퇴하고 있다는 징표 중 하나가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가 희미해져가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근대국가의 영토적 기반은 단절되고 고정적이며 배타적인 속성을 만든 근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토성이 해체되는 것은 세계화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민병원 2006:10에서 재인용)."

김남국(2005:158) 또한 국민국가가 적어도 20세기 말까지는 동질적인 문화를 지닌 시민들과 이들이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적인 사회통합과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에 성공해 왔지만, 지난 세기말부터 신자유주의로 인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경계 안의 안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바탕 한 지구화가 인간의 이주흐름을 가져오게 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금좌(2005)는 오늘날 경제통합과 함께 병행되어 나타나는 국제이민에 대해 언급했다. 세계화시대 경제통합 초기에 나타나는 이민은 주로 농민들의 이웃국가 농업분야로의 진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산업분야로 확대된다. 초기에 국경을 넘나들던 농민의 국경이민 형태가 이후 도시의 비숙련 노동자 형태로 변화된다. '국경이민'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일어나는 유형으로, 라틴아메리카는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다(최금자 2005:183).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는 나가는 이민, 들어오는 이민, 통과하는 이민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이민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세계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박윤주·임상래·이상현·조영태 2011:134).

이처럼 국가의 국경통제의 상실은 세계화시대 혹은 글로벌 자본주의로 인해 이주하는 이민자들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다른 국가로의 이주원인이 무력충돌, 전쟁, 인권문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강제이

dCollection @ pufs

주였다면, 오늘날에는 이민은 글로벌 자본주의로 인한 빈곤, 불평등, 사회적 폭력으로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한다. 그러나 이주의 흐름이 빨라지고, 이민자들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국가는 여전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

민병원(2006:12) 또한 세계화로 인해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국가는 하부단위체 및 초국가기구로 인해 권력과 권한이 분산되기는 했지만, 국가는 여전히 국내사회를 통제하고, 시장을 건설하면서 인간생활의 제반 영역을 규제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출생으로 인해 자동으로 구성원이 되었던 본래의 정치공동체를 탈퇴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하기를 원할 때, 이들이 원하는 국가들은 국경을 쉽게 열지 않는다. 오늘날의 세계 모든 국민국가는 자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신청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매우 적은 수의 가입만을 허용한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자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여 국경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그 경계를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권한 역시 갖고 있다고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다(김남국 2005:156).

“근대국가의 영토 안에서 확립되어온 개인들의 정체성은 세계화 속에서 중첩되거나 약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기준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다(민병원 2006:10에서 재인용).” “그러나 초국가적 교류가 크게 확산된 오늘날에도 국민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국가 단위체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민병원 2006:13에서 재인용).”

누구도 국경을 철폐하고 완전한 이주의 자유를 실현하자고 주장하지 못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도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이주자의 인권을 무시하자고 주장하지도 못한다(김남국, 2005:177).

dCollection @ pufs

2.3 라틴아메리카 국경

아메리카는 지형적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구성되고, 양 대륙의 경계는 파나마 지협으로 구분된다. 라틴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의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를 제외한 아메리카의 전역으로 북쪽으로는 미국-멕시코의 국경선으로부터 남쪽으로는 띠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섬까지 걸쳐져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중앙에 위치한 7개의 국가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를 중앙아메리카로 지칭한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는 다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도 구분할 수 있다(이전 1994:13-15).[5]

라틴아메리카는 1492년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복·식민지 과정을 거쳤다. 1700년대 이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외에도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의 열강세력들이 라틴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했다. 라틴아메리카는 이러한 식민지 과정을 지나 19세기에 대부분 독립하였다. 이 시기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군사적으로 개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9세기 이후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이 주동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6] 라틴아메리카 국경 형태의 변화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식민시기 라틴아메리카의 국경 개념은 식민본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행정단위에 의해 분류된 형태였다. 식민시기 초기, 1494년 양국 간에는 아메리카의 영유권을 설정한 '또르데시야스(Tordesillas)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양국의 국경을 서경 46도 37분선으로 하고, 동쪽은 포르투갈이 서쪽은 스페인이 차지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양국은 해당지역에서 탐험과 정복의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임상래 2003:179).[7]

---

5) 멕시코는 지형적으로 북미에 속해있지만, 문화적으로는 북미가 아닌 라틴아메리카에 속해있다. 우리나라에서 라틴아메리카를 흔히 중남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멕시코도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6)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1823년 먼로독트린(Monroe Doctrine)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유럽과 같은 외부세력들이 미주대륙을 간섭하거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의 국경선이 또르데시야스 조약으로 정해진 이후, 다른 국가들

dCollection @ pufs

스페인의 식민 행정 체계는 정복 이전에 존재하던 지역적·문화적 분류에 기반을 두고, 식민제국을 부왕령·총독령·아우디엔시아(audiencia)[8]등의 행정 단위로 분할하였다. 스페인 식민지에는 총 4개의 부왕령이 있었다. 1535년 현재의 멕시코에서 파나마까지 '누에바 에스빠냐(Nueva España) 부왕령', 1543년 페루지역에 '페루(Perú) 부왕령', 1717년 페루 부왕령의 일부였던 현재의 콜롬비아를 분리하여 '누에바 그라나다(Nueva Granada) 부왕령', 1776년 현재의 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볼리비아·지역에 '라 쁠라따(La Plata) 부왕령'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성훈(2008:110)에 따르면 행정구역에 기반 한 각 지역은 상호경쟁 할 뿐만 아니라, 경계 내에 친밀성을 확보하는 토대로 작용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은 통합적인 아메리카가 아닌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단위로 나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렇듯 식민시기 라틴아메리카는 국가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형태가 아닌, 식민본국에 의한 합의나 식민체계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700년대 후반, 스페인 식민지의 국경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출현으로 혼란스러워졌다.[9] 1800년대에는 1804년 아이티를 선두로, 1820년대 라틴아메리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새로운 국경선을 획정하였

보다 브라질은 더 적극적인 국경 확대전략을 추진하여 오늘날의 국경을 갖게 되었다. 또르데시야스 조약 이후 스페인은 조약상의 사법적 법률문제로서 국경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브라질은 선점권을 내세우는 '현상유지원칙(점유물 보유의 원칙)'을 잘 활용하여 현실적인 대응을 하였다. 임상래, "라틴아메리카 국경문제에 관한 소고", 이베로아메리카 제5호(2003) p.181

8) 부왕령은 식민지에서 스페인 왕을 대표하는 부왕이 총사령관으로 있는 행정구역이다. 부왕의 자격은 귀족가문 출신에 한정되었으며, 부왕의 권한은 왕실재정의 최고 감독관, 관할 아우디엔시아의 의장, 부왕령의 총사령관, 성직자 및 관리 임명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아우디엔시아는 가장 먼저 생긴 통치기구로, 식민지의 직접적인 통치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 기관은 일종의 재판소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아우디엔시아의 주 임무는 정복자들의 자치적 경향을 견제하면서 식민지의 중앙집권화를 위한 강력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최초의 아우디엔시아는 1511년 현 도미니카공화국의 산또도밍고에 설립되었고, 식민시기 동안 과달라하라, 멕시코시티, 과테말라, 파나마, 누에바 그라나다, 끼또, 리마, 칠레, 리오 데 쁠라따, 까라까스 등 주요지역에 모두 13개가 생겼다. 우덕룡,김태중,김기현,송영복, 라틴아메리카 마야, 잉카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문화(송산출판사, 2003), pp.164-165

9) 영국이 1783년 벨리즈와 1797년 트리니다드 섬을, 프랑스가 1795년 아이티와 1800년 루이지애나를 획득하였다. 임상래, "라틴아메리카 국경문제에 관한 소고", 이베로아메리카 제5호(2003), p.179

dCollection @ pufs

다. 1898년 미서전쟁에서 스페인이 미국에 패하고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이 독립하거나 미국령이 되었다. 이로써 스페인은 아메리카에서 모든 식민지를 잃었고, 스페인의 극서국경은 사라지게 되었다(임상래 2003:180).

라틴아메리카의 신생국가들은 독립과정 중에 항구나 무역거점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였지만(이성훈 2008:110), 신생국가 간의 국경획정은 스페인 식민시기의 행정구역 경계설정에 일치시켜 형성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 같은 원칙은 1810년에 만들어진 국경획정 상의 '현상유지 원칙(점유물 보유원칙)'에 근거한 것이었다(김홍철 1997:257-258).

이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국경획정은 대부분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시대를 거친 후 독립한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 김홍철(1997:252)이 언급한 것처럼 이 점은 라틴아메리카 국경문제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염두 해 두어야 할 특색이다.[10] 하지만 이성훈(2008:104)이 지적하였듯이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이후 국가 형성기는 지역에 따라 독립시기와 내용이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특징을 일반화 하기는 쉽지 않다.

이성훈(2008)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은 통합적인 아메리카가 아닌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단위로 나뉘게 되고, 거주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다. 독립직전 라틴아메리카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빠뜨리아(patria)'[11]라고 불렀다. 독립전쟁은 빠뜨리아에 기반 한 지역적 정체성을 국가적 정체성으로 전환하게 하였고, 빠뜨리아에 근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하자, 라틴아메리카 태생을 강조하던 입장[12]은 지역적 차이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제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기 시작하

10) 스페인어권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공통된 문화유산과 종교를 향유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상호의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시대를 벗어나 독립을 성취한 100년의 역사도 동일하다. 이 모두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국가발전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작용하고 영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대내적인 식민 개척지의 경계설정은 곧 정치국경의 형성과정으로 이행해 갔고, 이 같은 현상의 전개과정에는 많은 영토분쟁·국경분쟁 등의 새로운 현안과제를 만들기도 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경·영토분쟁 사건들은 모두 그 뿌리를 식민지시대에 두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강도는 희미해져갔다. 김홍철, 국경론(민음사, 1997) p.260-261

11) 스페인어로 patria는 조국을 뜻한다.

12) 식민시기 스페인 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반도인'이라는 뜻의 뻬닌술라르(peninsular), 식민지 태생의 스페인사람을 끄리오요(criollo)로 분류하였다.

dCollection @ pufs

였다(이성훈 2005:110-115).[13]

2장 국경의 의미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국가와 시민이라는 개념은 프랑스 혁명 이후 보편화되어 전 세계가 받아들인 것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독립의 주체였던 끄리오요(Criollo)[14]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립을 선택했고, 명분을 위해 '국가'라는 특정한 정체를 선택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본격적인 의미의 국가정체성이 모색된 시기도 독립 이후라고 할 수 있다(이성훈 2008:111).[15]

근대국가가 형성되고 난 후, 라틴아메리카에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처럼 심각하고 위험할 정도의 국경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 국경은 1914년 이전과 1914년~1947년 사이에 확립된 비교적 안정된 국경형태로 존립해온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를 갈라놓을 만큼 이데올로기적 분열현상도 없다. 또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국경을 순조롭게 획정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스페인의 식민통치에서 비롯된 언어·역사·문화·전통 등의 일체감을 어느 정도 공유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지리적 험난함, 부족한 인구, 광대한 영토, 경제·정치적 통합의 어려움 등으로 국가 간 국경은 스페인 식민통치에 기초해 설정된 경계에서 크게 벗어날 이유가 없었고, 이를 행정구역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김홍철 1997:252-253). 라틴아메리카의 국경형성이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지리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경이 하천국경 형태를 이루는데, 이 형태의 국경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라틴

13) 독립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와 '그들'을 구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동일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질감이었다. 이 동질감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의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되기 시작했고, 결국 새로운 국민국가의 열망은 깊은 문화적 동질성이라고 하는 전제에 기본하고 있다. 문화적 유사성은 새로운 국가가 유지되고, 국민이 재생산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화되고 체화시켜야 할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독립이후 시기는 일종의 정체성 정치에 의해 지배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성훈 "라틴아메리카 국민국가와 정체성 형성과정 연구 시론", Revista Iberoamericana, 19-1(2005) p.115 .

14) 식민시기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스페인사람을 지칭하는 말

15) 내셔널리즘(nationalism) 형성에 있어 국가의 과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19세기 중반까지 여전히 국가적 경계가 완전하게 마무리 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세기부터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성훈, "라틴아메리카 국민국가와 정체성 형성과정 연구 시론", Revista Iberoamericana, 19-1 (2005) p.112 .

dCollection @ pufs

아메리카에서 직선국경 즉 인공적인 국경은 많지 않다. 이것 역시 라틴아메리카의 국경형성이 비교적 평화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임상래 2003:180).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민행정구역이나 독립역사에 기초하여 국경획정이 이루어졌다 해도 근대국가가 생성된 이후 국경분쟁은 발생했다. 강석영(2005:248)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국경 및 영토분쟁의 근원적인 기원이 독립이후 불확실한 국경선 설정에 있었으며, 영토분쟁 또한 식민통치의 유산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경 및 영토분쟁은 국가 이익을 위해 영토통합을 시도하려는 열망, 광물 및 특이한 경제적 자원을 방어하려는 열망, 집권 엘리트집단의 모호한 국가이익의 추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경분쟁의 수습은 대부분 주민의 합의, 역사적 사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약 또는 협정으로 이루어졌다(강석영, 2005:248).

라틴아메리카 국경분쟁의 역사와 형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토분쟁을 겪은 국가는 멕시코·미국, 과테말라·벨리즈, 엘살바도르·온두라스, 베네수엘라·가이아나 등이 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에 말비나스(포클랜드)제도 영유권을 둘러싼 전쟁에서는 아르헨티나가 패하기도 하였다. 또한 볼리비아·칠레의 하천국경 분쟁, 아르헨티나·칠레의 남극대륙 영유권 문제 등이 있다. 자연자원, 원료자원의 발견 및 수요증대로 인한 분쟁은 칠레·페루·볼리비아 간의 '태평양 전쟁(1879~1883년)'이 있다.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칠레는 사막국경을 확대할 수 있었다. 교섭에 의해 만들어진 국경은 브라질·페루, 브라질·볼리비아, 콜롬비아·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멕시코·과테말라 간 국경 등이 있다. 조정에 의한 국경은 아르헨티나·파라과이 간의 하천국경, 1889년 클리블랜드가 해결책을 제안한 브라질·아르헨티나 국경이 있다. 영유지배권을 둘러싼 파라과이 대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의 '삼국동맹 전쟁(1865~1870년)에서 패한 파라과이는 영토 상실로 내륙국이 되기도 하였다. 1900년대 초 브라질·볼리비아 간 고무생산지 아크레(Acre)영토분쟁사건으로, 볼리비아는 북부 영토 아크레(Acre)의 많은 땅을 브라질에 넘겨주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경분쟁의 요인은 다양하다. 라틴아메리카의 국경은 대부분 하천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명확하게 획정된 하천국경이라 할지라도 관계

dCollection @ pufs

국의 수리·관개·농경·수력발전시설 등의 문제가 국경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경분쟁은 국경관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원주민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치적인 국경개념은 공통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생활하는 정착성 원주민 사회집단을 둘로 갈라놓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 페루와 볼리비아 간 국경 획정이 좋은 예이다. 남아메리카 국가의 국경은 거의 대부분이 유럽인들이 이 대륙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이전에 이미 획정·확립되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남아메리카의 국경형태는 3중 또는 다중적인 독특한 형태를 지니기도 한다. 그 중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볼리비아·브라질·페루의 삼중국경, 브라질·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의 4개국이 겹쳐있는 다중적국경이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는 해양자원개발을 둘러싼 각국 간의 경쟁적 노력과 대립, 남극대륙에 있어서의 영토주권의 분쟁을 과제로 안고 있기도 하다(김홍철, 1997:259-261).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국경에 대한 인식은 그것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거의 모든 국경은 국가 간 충돌과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거기에 그 나라의 정치·경제 중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가장 저급한 거주 공간의 한 곳으로 간주되어 왔다. 근대에 들어서는 국경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증대되면서 국경은 식민화 계획과 자원·인구의 재배치를 통한 성장·개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구와 경제의 역동적 성장은 물론이고 돈과 서비스와 교환, 도로망을 통한 물리적 연결, 전기·통신의 교차 사용, 자원의 공동이용과 보호 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의 국경은 이제 단순한 경계선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임상래 2003:184-185에서 재인용).”

dCollection @ pufs

Ⅲ. 멕시코 국경 개관

3.1 멕시코 국경의 형성과정

식민 시기부터 멕시코 북부국경지역은 인구가 적긴 했지만, 누에바 에스빠냐(Nueva España) 부왕령의 영토였다. 이 지역은 1814년 스페인과 미국 사이의 협약에 의해 멕시코의 영토가 되었다(INEGI :10).

“독립 이후 멕시코는 미국과의 국경선을 1819년 스페인이 미국과 체결한 아담스-오니스 조약(Treaty of Adams-Onis)에서 설정한 경계선으로 확정했다(강석영 2005:252에서 재인용).”

“멕시코 정부는 독립이후에 식민과 교역을 위해 북부지역을 외국인에게 개방했다. 특히 이 시기에 미국인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멕시코 상인을 밀어내고 이 지역의 교역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뉴멕시코 시장을 지배했던 멕시코 제품은 미국의 공산품에 밀리기 시작했고, 미국상품을 실은 역마차가 산타페 트레일(미주리 주-산타페 간의 교통로)을 왕래하면서 멕시코는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 극북지역의 경제와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점차 상실하였다(임상래 2013:213에서 재인용).” 상황은 텍사스에서도 비슷했다. 미국은 1820년대부터 멕시코 정부에 수차례 텍사스 구매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를 거부하고, 텍사스를 식민화하여 영유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식민화법을 제정, 이 법에 따라 텍사스로 이주한 외국인에게 토지를 싼값에 제공하고 세금도 4년간 면제해주었다. 하지만 이주한 외국인들은 주로 미국인 이었으며, 1822년 텍사스에 최초의 미국인 정착촌이 건설되었다(임상래 2013:213-214).

미국은 1823년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을 선언하여 서반구 방어의 일차적 원칙을 수립했다. 그 후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선은 1828년 1월 12일 자조약, 1831년에 보완된 조약에 의해 재조정 되었다(강석영, 2005:252-253).

1830년 텍사스의 미국인은 멕시코인의 두 배가 되었다. 텍사스에 미국인

dCollection @ pufs

이 많아지면서 영어를 사용하고, 가톨릭을 믿지 않으며, 멕시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또 멕시코는 노예제도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미국인들은 노예를 데려왔다. 결국 1830년 멕시코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인의 유입을 금지하였으나 미국인의 이민흐름은 끊이지 않았다. 183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인과 멕시코인 간의 충돌이 격화되었다(임상래 2013:214). 1836년 5월 14일 텍사스에 거주하던 미국인들은 비준되지 않은 '벨라스코(Velasco)협정'에 의해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미국은 처음에 텍사스 공화국의 독립문제에서 중립을 지켰으나, 1837년 독립을 승인했다(강석영, 2005:253). 멕시코는 미국의 텍사스 합병에 항의하여 미국과 단교하였고,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텍사스는 1836년~1845년 10년 동안 텍사스공화국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멕시코 영토이기도 했다. 그러나 1845년 텍사스의 미국 연방 가입이 승인되면서 텍사스는 미국의 28번째 주가 되었다. 1846년 1월 미국의 포크 대통령은 텍사스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1846년 5월 13일 미국의 선전포고가 있었고, 양국 간에 교전이 발발하였다. 캘리포니아 역시 1840년 태평양 연안에 중요한 미국인 정착촌이 자리 잡았다. 1846년 7월, 캘리포니아의 백인들은 멕시코에 독립을 선언했다.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는 태평양 교역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멕시코인들은 미국의 점령에 대항하여 로스앤젤레스 및 타오스에서 저항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군대는 멕시코의 해상 관문인 베라크루스(Veracruz) 항구를 공격하여 1847년 3월 함락시켰다. 1847년 5월에는 뿌에블라(Puebla)를 점령하였고, 결국 1847년 9월 14일 멕시코시티가 미국에 함락되어, 멕시코 정부는 께레따로(Querétaro)로 옮겼다. 1848년 2월 2일 미국 멕시코 양국 간 '과달루페-이달고 조약(Guadalupe-Hidalgo)'[16]이 체결되어 미국-멕시코 전쟁(1846년 5월~1847년 9월)은 종전되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의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였고, 리오그란데 강은 텍사스와 멕시코의 경계선이 되었다(임상래 2013:214-216).

16) 1848년 멕시코와 미국 간 체결한 조약. 조약의 5조에 의거 리오 그란데(Río Grande)를 국경선으로 확정하면서 텍사스뿐 아니라 북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및 아리조나 주 등 2,263,866㎢의 영토를 차지했다. 당시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영토상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1천5백만 페소를 받았다. 강석영, 중남미 정치와 국제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p.253에서 재인용

dCollection @ pufs

‘과달루페-이달고 조약(Tratado de Paz y Guadalupe Hidalgo)’으로 멕시코는 2,240,000㎢(국가 영토의 51%)를 상실했다. 1853년 ‘메시야 구매 조약(Tratado de Gadsden, Venta de la Mesilla)’조약에 새롭게 서명하면서 수정·변경된 국경선으로 멕시코는 치와와(Chihuahua)주와 소노라(Sonora)주에 상응하는 면적 109,574㎢를 잃었다(INEGI :11)

텍사스의 엘 패소(El Paso)와 치와와의 시우닷 후아레스(Ciudad Juaréz) 사이에 위치한 차미살(Chamizal)지역은 국경선으로 획정되어 있었고, 이곳은 멕시코의 영토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부정했고, 1963년 마지막으로 상호 영토간의 보상(배상)을 포함한 협정이 성립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판결 된 지불해야 할 면적 177헥타르 중 148헥타르 만을 멕시코 정부에 되돌려주었다(INEGI :11).

멕시코와 미국 간 국경은 현재의 국경선을 획정하기 까지 전쟁과 협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과테말라와 접하고 있는 남부국경은 과테말라와 많은 갈등을 거쳐 현재와 같은 우수마신따 강의 유로와 직선화된 인위적 선을 그어 국경을 획정했다(전경수 외 2010:204).

역사적으로 멕시코와 과테말라는 치아빠스(Chiapas)주를 반복하며 소유해 왔다. 식민시기 치아빠스는 과테말라 아우디엔시아에 속해있었다. 1549년 협약에 의하면 처음으로 멕시코의 남부 경계가 표시되었고, 치아빠스는 과테말라 아우디엔시아의 소유가 되었다. 하지만 과테말라 아우디엔시아가 파나마로 바뀌면서, 치아빠스의 소꼬누스꼬(Soconusco) 지역은 누에바 에스빠냐의 소유가 되었다. 하지만 소꼬누스꼬는 1568년 6월 28일 다시 과테말라 령이 되었고, 그 이후로 1821년까지 이 지역은 과테말라 아우디엔시아의 영토였다(César Sepulveda 1958:145).

이처럼 치아빠스는 스페인 식민시기 원래 과테말라에 속해있었다. 하지만 과테말라가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멕시코에 잠깐 합병되었다가 다시 독립하는 과정에서 1823년 멕시코의 영토로 남게 되었다.

“멕시코는 1824년 과테말라와의 협정으로 남부 국경지역의 치아빠스 주를 멕시코에 편입한 후, 1842년 협정을 체결하여 과테말라의 소꼬누스꼬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 치아빠스 주에 귀속시켰다. 그로 인해 양국 사이 갈등이 일어 1882년 9월 27일자 조약을 통해 과테말라는 치아빠스주와 소꼬누스코

dCollection @ pufs

지역의 영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1899년 4월 2일자 협정으로 국경선을 재확인했다(강석영 2005:254에서 재인용).”

1893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벨리즈와 인접한 국경은 멕시코와 영국(Honduras Británica)이 ‘스펜서 마리스칼 조약(Tratado Spenser-Mariscal)’을 기반으로 분쟁 없이 국경선을 획정하였다. 이후 1893년, 벨리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양국 사이에 국경선에 관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1893년 당시에는 식민지였던 벨리즈가 영국의 한 도시로 조약에 서명했던 것을 1897년 자유와 주권을 가진 국가 벨리즈로 다시 변경하였을 뿐이다(Jorge Luis Hidalgo Castellamos 2007:161-162).

dCollection @ pufs

3.2 멕시코 국경의 지리적 성격

[그림 1] 멕시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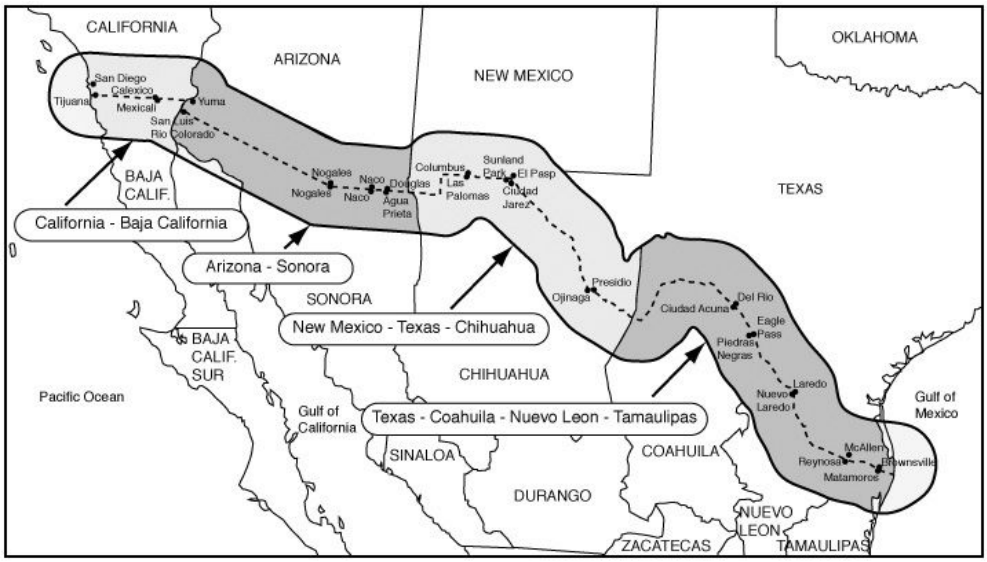
출처: www.mexicodiplomatico.org

멕시코는 북쪽으로 미국, 남쪽으로 과테말라·벨리즈와 국경을 형성하고 있다. 멕시코의 동쪽은 대서양, 멕시코 만, 앤틸레스 제도(las Antillas)로 국경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바다는 쿠바와 유까딴(Yucatán) 반도 사이에 있는 유까딴 주의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다. 멕시코의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캘리포니아 반도가 있는 캘리포니아 만(Gofo de California) 해안선이 나란히 있다(INEGI :13).

dCollection @ pufs

3.2.1 북부 국경지역

[그림 2] 멕시코 북부국경지역



출처: Mauel Mollá Ruiz-Gómez(2011), La región fronteriza México-Estados Unidos, un lugar de unión y desencuentos, Investigacions Geográficas, No.55, p.170.

멕시코의 북부국경지역은 바하 깔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 소노라(Sonora), 치와와(Chihuahua), 꼬아우일라(Coahuila), 누에보 레온(Nuevo León), 따마울리빠스(Tamaulipas)주로 이루어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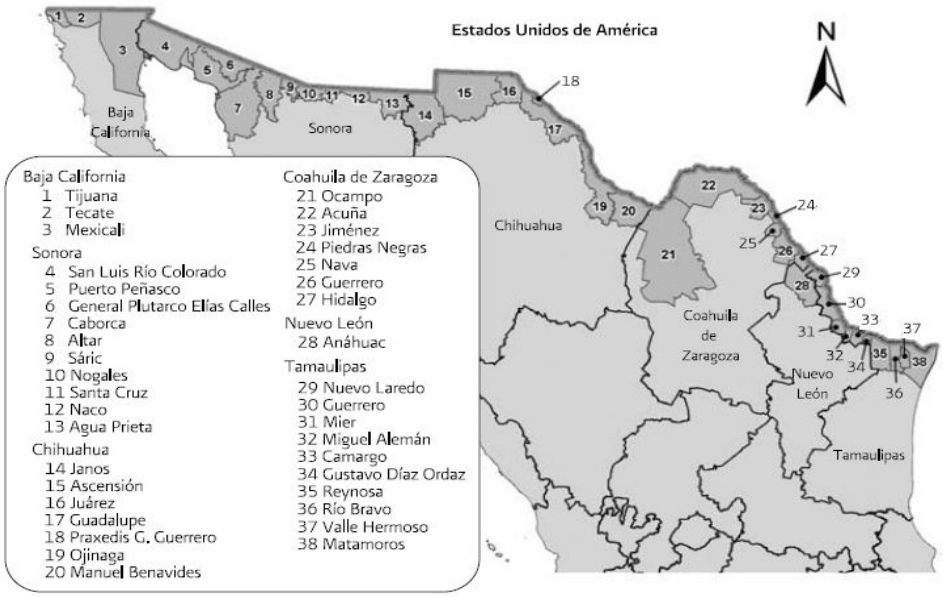
"1983년 8월 14일 멕시코와 미국 양국은 '라 빠스 협정(Tratado de la Paz)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경 보호와 국경지역의 자연환경 개선이었다. 조항 4에 따라 양국이 협정한 국경지역의 공식적인 정의는 국경선을 중심으로 양 국가의 100km의 넓은 지역, 3,141km의 육지와 바다를 포함하고 있다.[17] 여기에는 멕시코와 미국 간 15개의 쌍둥이도시 띠후

17) 미국은 캘리포니아(California), 애리조나(Arizona), 뉴멕시코(New México), 텍사스(Texas)가 국경지역에 속한다.

dCollection @ pufs

아나(Tijuana)-샌디에고(San Diego), 메히깔리(Mexicali)-칼렉시코(Calexico), 산 루이스(San Luis)-유마(Yuma), 노갈레스(Nogales)-노갤(Nogal), 나꼬(Naco)-나코(Naco), 아구아 쁘리에따(Agua Prieta)-더글라스(Douglas), 뿌에르또 빨로마스(Puerto Palomas)-콜럼버스(Columbus), 시우닷 후아레스(Ciudad Juárez)-엘패소(El Paso), 오히나가(Ojinaga)-프레시디오(Presidio), 시우닷 아꾸냐(Ciudad Acuña)-델리오(Del Rio), 삐에르다스 네그라스(Piedras Negras)-이글패스(Eagle Pass), 누에보 레라도(Nuevo Laredo)-라레도(Laredo), 리오 브라보(Río Bravo)-웨슬라코(Weslaco), 레이노사(Reynosa)-매켈런(McAllen), 마따모로스(Matamoros)-브라운스빌(Brownsville)을 포함하고 있다. 양 국경은 멕시코의 35개의 무니시삐오(municipio)와 미국의 25개 카운티, 원주민 부족 32개(멕시코 7개, 미국 26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경지역에는 약 1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Mauel Mollá Ruiz-Gómez 2011:171에서 재인용)."

[그림 3] 멕시코 북부국경지역 6개주와 무니시삐오(municipio)



출처: EMIF NORTE(2013), Encuestra sobre Migración en la Frontera Norte de México, Series analizada 2004 a 2011, p.14.

dCollection @ pufs

지형적으로는 미국의 엘패소와 멕시코의 시우닷 후아레스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멕시코 만까지 리오그란데 강이, 서쪽으로는 태평양까지 광대한 평원이 국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후아레스· 엘패소에서 브라운스빌· 마따모로스까지의 양국 국경은 리오그란데 강이 자연국경선을 이루고 있으나, 반대편으로 샌디에이고·티후아나까지의 서쪽 국경은 양국이 합의한 가상의 선으로 국경이 형성되어 있다. 이 국경선은 사막지대를 횡단하면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임상래 2013:227-228).

기후적으로 대부분이 고원사막지대에 속하는 북부국경지역은 건조하고 기온은 겨울에는 영하에서부터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이 지역은 식민 시기부터 인구가 적었으나 1960년대에 정부가 국경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시와 인구가 팽창하기 시작했다.

[표 1] 1980년 이후 북부국경지역 전체인구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Baja California	1,177,886	1,660,855	2,487,367	3,155,070
Sonora	1,513,731	1,823,606	2,216,969	2,662,480
chihuahua	2.005,477	2,441,873	3,052,907	3,406,465
Coahuila	1,557,265	1,972,340	2,298,070	2,748,391
Nuevo León	2,513,044	3,098,736	3,834,141	4,653,458
Tamaulipas	1,924,484	2,249,581	2,753,222	3,268,554

출처 : México en Cifas, Información nacional, por entidad federativa y municipios, El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s y Geografíz(INEGI)

2010년 북부국경지역의 인구는 730만 명으로 멕시코 전체인구의 37%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 중 치와와 주의 씨우닷 후아레스와 바하 깔리포르니아 주의 띠후아나에는 국경도시 인구의 40%가 거주하고 있다(EMIF NORTE 2013:12).

멕시코 정부는 북부국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국경개발 프로그램'을 도입

dCollection @ pufs

해 실시했고, 1965년 국경산업화 프로그램(Programa de industrialización Fronteriza, PIF)과 함께 마낄라도라(Maquiladora)산업이 출현했다. 이는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미국 간 미국남부지역 취업을 허용하는 협정이 종료되면서 멕시코인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였다(권기수 2005:92). 따라서 멕시코 북부 국경도시들은 국경산업화 계획에 의해 생긴 보세산업, 마낄라도라 산업에 기반 해 산업성장을 했다. 미국 국경도시의 경제 또한 마낄라도라 산업에 상업적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낄라도라 산업과 상호보완적인 생산 활동을 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특히 엘패소(El paso)에서는 국경산업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의류산업이 성장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 이유는 봉제는 멕시코에서하고 워싱·가공 등과 같은 마감은 미국에서 진행하며 상호보완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했고, 국경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이 일조했기 때문이다(김현균·이은아 엮음 2013:168-170). 1960년대는 많은 농민들이 멕시코시티와 멕시코 제2의 도시들(과달라하라, 몬떼레이, 뿌에블라, 베라끄루스 등)로 대량이주하고 밀집되던 시기였다. 농촌의 빈민들은 멕시코 국경지역으로 몰려들어 새로 형성된 마낄라도라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에릭 허쉬버그·프레드 로젠 외 2008:297-298).

멕시코 북부국경지역은 멕시코 내륙지역에 비해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고, 멕시코-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의 완충지대가 된다. 특히 멕시코 내륙지역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마낄라도라 산업을 중심으로 긴급한 외환을 끌어들이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이렇듯 멕시코의 북부국경은 경제와 인구의 교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로이다(이전·백종국 1997:156).

1992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으로 자본과 재화가 국경의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양국의 경제적인 관계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제외되면서 북부국경지역은 멕시코 노동력에 대한 접근성, 국경 근처 멕시코 산업에 대한 미국 공급자, 시장의 근접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멕시코와 미국 산업 모두 국경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김현균·이은아 엮음, 2013:168).

dCollection @ pufs

3.2.2 남부 국경지역

[그림 4] 남부국경지역

출처: Moisés Esteban Guitart, Ignasi Vila Mediburu, José Bastiani Gómez(2010), El carácter fronterizo de las identidades contemporáneas. El caso de chiapa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o.44.

남부 국경지역은 치아빠스(Chiapas), 따바스꼬(Tabasco), 깜뻬체(Champeche), 낀따나로(Quintana Roo), 유까딴(Yucatán)주로 이루어져 있다. 과테말라, 벨리즈 두 국가와 접경해 있는 남부 국경선의 총 길이는 1,149km이고, 과테말라와 956km, 벨리즈와 193km(바다로 이루어진 국경선은 약 85km)를 형성하고 있다(EMIF SUR 2006:17). 각 주의 무니시삐오는 따바스꼬 17개, 깜뻬체 11개, 낀따나로 10개, 치아빠스는 가장 많은 130여개를 가지고 있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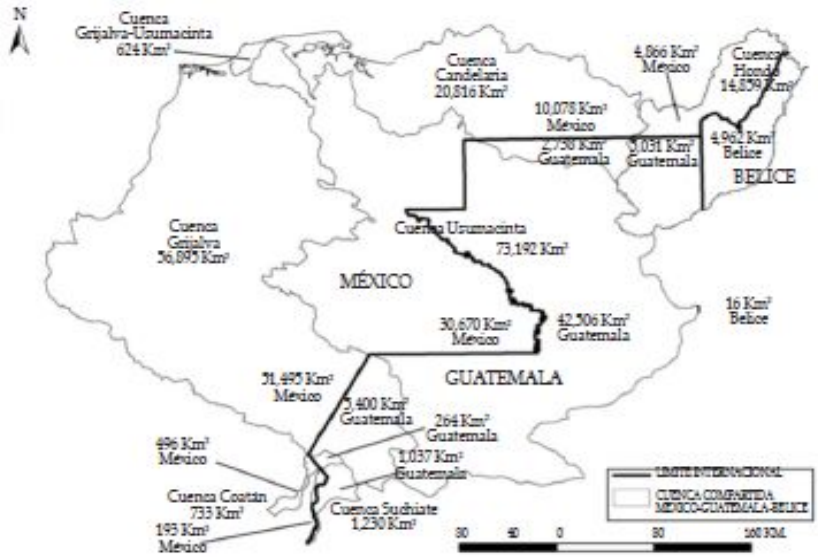
18) México en Cifas, Información nacional, por entidad federativa y municipios, El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s y Geografíz(INEGI) http://www.inegi.org.mx

dCollection @ pufs

멕시코-과테말라 간 국경은 치아빠스의 수치아떼(Suchiate)강, 우수마신따(Husumacinta)강으로 경계가 획정되어 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밀림과 산악지대로 이루어져있는데, 따바스꼬와 깜뻬체는 과테말라의 뻬뗀(Petén) 정글 지역과 접해있다. 멕시코-벨리즈 간 국경은 온도(Río de Hondo)강, 아로요 아술(Arroyo Azul)강으로 국경이 형성되어 모두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다(Natalia Armijo Canto, 2011:36).

멕시코의 남부국경은 대부분 하천으로 국경선이 획정되어 있다. <그림 5>는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세 국가가 6개의 강 수치아떼, 꼬아딴(Coatán), 그리할바(Grijalva), 우수마신따, 온도, 깐델라리아(Candelaria)로 국제하천을 공유하고 있는 국경모습이다.

[그림 5] 멕시코 남부 국제하천



출처: Edith F. Kauffer Michel(2010), Hidropolítica del Candelania: del análisis de la cuenca al estudio de las interacciones entre el río y la sociedad ribereña, Relaciones. Estudios y sociedad, vol.31, núm.124, p.189

dCollection @ pufs

멕시코 남부국경지역은 생물학적 다양성과 자연환경에 특권이 부여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강수량(연간 2,365mm)을 가지고 있고, 치아빠스와 따바스꼬 지역을 흐르고 있는 그리할바, 우수마신따 강, 치아빠스의 수치아떼 강, 깜뻬체의 깐델라니아 강, 낀따나로의 온도 강이 토양에 영양을 공급해준다. 산림생태계는 바다에서부터 맹그로브 숲, 1800m 고도에 있는 소나무 숲, 낙엽수가 있는 낮은 밀림, 중·저지대의 정글 지역까지 매우 다양하다(Salvador Hernández 2004:4).

특히 치아빠스는 남부국경지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수, 자연환경, 문화적인 면에서 다른 남부국경지역보다 중요성이 크다.

치아빠스는 중미의 지협 부(isthmus)에 위치하여 중앙아메리카의 고지대와 생태 환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고,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밀도 높게 분포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또한 좁은 지협 내에 험준한 산맥과 고지대가 펼쳐져 고도에 따른 기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 생물종의 다양성을 배가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처럼 치아빠스는 변화무쌍한 지형과 기후조건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전경수 외 2010:199).

멕시코에서 유일한 열대우림 지역인 라깐돈(Lacandón)정글은 치아빠스의 우수마신따 강 유역분지에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의 생태 환경적·자원적 가치는 100여 년 전부터 주목을 받아 당시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다. 투기적 개척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은 개발구역과 국가지정 보호구역으로 구분되고 있다(전경수 외 2010:216).

남부국경지역에서 국가가 지정한 자연보호구역(Áreas Naturales Protegidas: ANP)은 치아빠스의 '몬떼 아술 생물권 보전지역(Reserva Integral de la Biosfera Montes Azules)', '라깐뚠 생물권 보전지역(la Reserva de la Biosfera Lacantún)'등이 있으며, '찬낀(Chankin)' 지역의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보남빡(Bonampak)·약스칠란(Yaxchilan)의 유적지와 자연을 보호하고 있다. 따바스꼬의 쎈뜰라(Centla)에 '늪지생물권 보전지역(la Reserva de la Biosfera de los Pantanos)', 깜뻬체에는 깔락끄물(Calakmul), 낀따나로에 '시안 깐 생물권 보전지역(la Reserva Biosfera de Sian Ka'an)'

dCollection @ pufs

등이 있다(Salvador Hernández 2004:7). 이처럼 멕시코 남부국경지역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다양성으로 인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남부국경지역에는 멕시코 전체 인구의 7.5%가 거주하고 있다(José Pablo Liedo Fernández 2005:28). 1980년대 이후 남부국경지역의 인구수는 <표 3>과 같다.

[표 2] 1980년 이후 남부국경지역 전체인구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Chiapas	2,084,717	3,210,496	3,920,892	4,796,580
Tabasco	1,062,961	1,501,744	1,891,829	2,238,603
Campeche	420,553	535,185	690,689	821,441
Quintana Roo	225,985	493,277	874,963	1,325,578

출처 : México en Cifas, Información nacional, por entidad federativa y municipios, El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s y Geografíz(INEGI) http://www.inegi.org.mx

민족적 측면에서도 남부국경지역은 북부국경지역과 달리 같은 문화와 민족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는 역사적으로 그 기원이 같아 강한 인종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Ma. Eugencia Ramírez Parra, 2003:3). 또한 멕시코의 남부국경지역은 과거 원주민 문명이 발달한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속해있다. 현재에도 이 치아빠스 지역은 멕시코 내 원주민 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치아빠스의 전체 원주민 비율은 31%이며, 이들 중 최대 종족 집단은 첼탈(Tseltal)과 소칠(Tzotzil)족이다. 치아빠스의 무니시삐오 중에서 99개의 무니시삐오에 원주민 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13개의 무니시삐오는 인구의 98%이상이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원주민 인구비율이 50%를 상회하는 무니시삐오는 전체의 36%에 이른다(전경수 외 2010:202). 치아빠스의 원주민어 사용비율을 보면 <표 3>과 같다.

dCollection @ pufs

[표 3] 치아빠스 원주민언어 사용 비율

	언어	사용수(명)	사용비율(%)
1	Tseltal	362,658	37.9
2	Tzotzil	320,921	33.5
3	Ch'ol	161,794	16.9
4	Zoque	43,936	4.6
5	Tojol-ab'al	42,798	4.5
6	Kanjobal	5,459	0.6
7	Mame	5,446	0.6
8	Cluj	1,869	0.2
9	다른 원주민 언어(기타)	4,695	0.5
10	명기되지 않은 언어	7,679	0.8
	총 합계	957,255	100

출처: Moisés Esteban Guitart, Ignasi Vila Mediburu y José Bastiani Gómez(2010), El caracter fronterizo de las identidades contemporaneas. El caso de chiapa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o.44.에서 재인용

남부국경지역은 북부국경지역과 달리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에 기반 한 산업이 발달했으며, 주산업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은 자연환경 변화, 소비자와 외부 가격 변동에 의해 크게 좌우될 위험을 안고 있다(Salvador Hernández 2004:5).

멕시코에서 가장 주된 곡물인 옥수수는 치아빠스 전역에서 재배된다. 주로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가구와 마을 단위의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 저지대와 중앙밸리 지역에서는 주로 메스띠소들과 외래 자본에 의해 시장지향적 상업 작물이 대규모로 재배·관리 되고 있다. 치아빠스 지역에서 농업 방식은 인종에 따라 원주민 화전농업, 엔꼬미엔다(Encomienda), 플랜테이션 등 다양하게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전경수 외 2010:212). 1880년대부터는 치아빠스의 소꼬누스꼬(Soconusco)지역에 커피산

dCollection @ pufs

업이 발달하여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를 건설했다.

특히 치아빠스 지역에는 2개의 대하천이 풍부한 수량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로 개관된 경작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수력발전의 원천으로서 멕시코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중앙밸리 지역을 관통하는 그리할바 강에는 7개의 대형 수력발전소가 있다. 그리할바 강 수력 댐에서 생산된 전력은 멕시코 중부의 산업 밀집 지구에 공급되고 있고, 생활용수로도 이용되어 수도인 멕시코시티에까지 공급되고 있다(전경수 외 2010:212).

따바스꼬는 석유 붐으로 산업이 발달했고, 깜뻬체 역시 "우수마신따 강 유역분지의 저지대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어, 생산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으며(전경수 외 2010:212)", 밀림지역을 개척하고 있다(Salvador Hernández 2004:4).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북부국경지역은 제조업이 발달하고,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남부국경지역은 멀리 변방에 위치하고 있고, 여전히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듯 멕시코 남부국경지역은 생물학적·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지만 빈곤비율이 높고, 현재에도 차별이 심하다. 그러한 이유로 북미자유협정이 발효되던 1994년 1월 1일, 치아빠스의 산 끄리스또발 데 라스 까사스(San Crístobal de las Casas)에서는 무장혁명단체인 사빠띠스타 민족해방군(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EZLN)이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dCollection @ pufs

[그림 6] 멕시코-벨리즈 국경

출처: INEGI, Referencias geográficas y extensión territorial de México, p.12.

멕시코-벨리즈 간 국경지역은 '작은 국경'이다. 벨리즈와 접하고 있는 멕시코의 국경의 전체 길이는 236.5km이며, 양국의 국경선은 체뚜말(Chetumal)에서 온도 강까지 연결되어 단지 149.5km를 공유하고 있다. 양국경선은 온도 강과 아로요 아술 강으로 이루어져 있다(Jorge Luis Hidalgo Castellanos 2007:160). 이 국경지역은 멕시코 체뚜말과 낀따나로 해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낀따나로는 깐꾼(Cancún)관광단지가 개발되어 세계적인 관광산업이 발달하였고, 체뚜말은 벨리즈 사이의 생산품으로 무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에는 멕시코, 벨리즈 두 국가가 함께 도로를 건설하기도 하였다(Salvador Hernández 2004:7).

3.3 멕시코 국경문제

멕시코 미국 간 국경은 1846년~1847년 전쟁을 거쳐 국경선을 획정하였다. 멕시코-과테말라 간 국경지역에서는 멕시코가 치아빠스의 소꼬누스꼬

dCollection @ pufs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으나, 양국이 협약을 통해 1899년 현재의 국경선을 획정하였다. 이렇듯 멕시코는 현재의 국경선을 형성하면서 영토분쟁이 있었다.

다음으로 국경지역에는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멕시코의 북부국경지역은 1965년 마낄라도라 산업이 출현하면서 국내의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해왔다. 그 결과 1960년~1990년대까지 이 지역은 도시가 팽창되고 가속화되었지만,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도시 인프라는 매우 부족했다. 1990년대에도 북부국경도시에는 상하수도 및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북부국경지역은 마낄라도라 산업으로 인한 독성문제, 빠른 도시·인구 성장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멕시코-미국 국경지역의 수자원 고갈, 공해, 독성폐기물, 건강위협, 도시주민의 삶의 질 등과 같은 환경문제는 미국 멕시코 두 국가가 공동으로 겪는 일이었다. 북부국경지역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고, 멕시코 미국 양국 정부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국경지역 커뮤니티의 요구 때문이었다. 1983년 멕시코와 미국정부는 일명 '라 빠스 협정(Tratado de la Paz)'으로 불리는 '양국 간 환경협의(Acuerdos Paralelos de Medio Ambiente PIAF)'를 체결하였고, 국경지역 환경의 심각한 피해, 생태환경 파괴 등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 규정에 의해 멕시코와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국경자연환경협력위원회(Comisión de Cooperación Ecológica Fronteriza, COCEF), 북미개발은행(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 NADBANK)[19]이 창설되었고, 이 시기부터 정부와 시민단체가 국경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다(Miriam Alfie Cohen 2002:52-55).

남부국경지역은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에 의해 자연·생태환경이 오염되고, 천연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다. 특히 치아빠스의 경우, 1994년 북미자유

19) 국경자연환경협력위원회(Comisión de Cooperación Ecológica Fronteriza, COCEF)와 북미개발은행(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 NADBANK)은 1993년 미국·멕시코에 의해 창설된 형제기관이다. 국경자연환경협력위원회(COCEF)는 멕시코 치와와(Chihuahua)주의 시우닷 후아레스(Ciudad Juárez)에, 북미개발은행(NADBANK)은 텍사스 산안토니오(San Antonio)에 위치하고 있다.
www.cocef.org , www.nadbank.org

dCollection @ pufs

무역협정 이후 플랜테이션, 대규모 가축사육과 같은 상업적 농업지역으로 변해왔다. 치아빠스에서는 더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해 자연환경을 개발하고, 상업적 경작지를 확대하기 위한 산림제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전경수 외 2010:202-205). "열대우림을 제거하여 조성한 비육우 가축산업도 더욱 확장했다. 소위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묘사되는 열대우림 파괴와 햄버거용 비육우 가축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열대우림은 이미 절반이상 파괴되었다(전경수 외 2010:205에서 재인용)." 치아빠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최근 30년 동안 국제 NGO단체들의 요구와 주장을 수용하면서 생물보호구,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해왔다. 라깐돈 열대우림 정글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와 NGO단체가 1978년 '몬떼 아술 생물권 보전지역(Reserva Integral de la Biosfera Montes Azules)'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기존의 토착 원주민들의 강제 이주라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자연을 상품화해 이윤을 쌓으려는 외래 글로벌 주체들의 압력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전경수 외 2010:219-221).

이처럼 멕시코 북부국경지역은 산업발전으로 도시와 인구의 팽창, 도시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했고, 미국 멕시코 양국이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부국경지역은 과도한 환경개발로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각하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일부에서는 생태환경운동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환경파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멕시코 국경지역은 수자원 문제도 발생했다. 미국의 남서부 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멕시코 북부국경지역은 사막에 해당하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한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에 도시가 생성되고 사람이 살게 되면서 수자원 확보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는 멕시코-미국 양 국경지역에서 나타났다. 19세기 말, 미국은 국경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콜로라도 강에 관개시설을 건설했다. 이로 인해 멕시코 쪽으로 흘러가는 수량이 감소하여 1895년 멕시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양국의 협상은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다 1922년 콜로라도 강 조약(Colorado River Compact)

dCollection @ pufs

을 체결하여 수자원을 동등하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1924년 양국 정부는 연간 약 653억 입방피트의 물을 멕시코에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약을 다시 체결하였지만, 콜로라도 강의 용수 문제는 양국의 농업용수 사용이 늘면서 다시 재현되었다. 이러한 수자원 문제로 인해 국경위원회는 1944년 국경과수자원위원회(International Boundary and Water Commission)으로 재편되었다. 1960년대 멕시코 만 쪽으로 흐르는 콜로라도 강물이 고갈되어 문제가 되었으나, 1973년 미국이 멕시코에 일정량의 용수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문제가 종결되었다. 하지만 1944년 콜로라도 강의 용수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20만 이었으나 현재는 2,000만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양국의 물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임상래 2013:250). 멕시코 북부국경은 인구증가와 도시의 팽창으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수자원문제도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국경의 보안문제이다. 특히 멕시코-미국 국경의 상황은 매우 복합적인데, 이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었다. 따라서 멕시코-미국 국경지역의 문제는 지역적인 성격에서 국가 전체적인 일로 확대되었고, 이것은 정부의 전체적인 의제의 한 부분이 되어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있다(Jose María Ramos García 2012:8). 멕시코와 미국의 보안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생성된 상황이다. 1990년대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특별한 갈등 없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국제관계 긴장이 멕시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테러리스트들이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추측이 있었고, 멕시코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가안보 요구에 부응하도록 강요받았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해 있는 이웃국가로서 캐나다와 함께 미국의 반테러협력을 요구받은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Raúl Benítez Manaut 2009:176).

2001년부터 미국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정책을 마약과 불법이민을 통제하고 국경보안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정부·지역 간 협력을 해왔다(Jose María Ramos García 2012:23). 이에 따라 멕시코는 2002년 3월 미국과 새로운 보안협정을 체결하였다. 9.11 테러 공격 후 멕시코는 미국과의 스마트 국경 협정에 서명했고, 2005년 이 계약은 북미의 보안과 번영을

dCollection @ pufs

위한 동맹으로 제도화 한 후, 2008년 '메리다 이니셔티브((Iniciativa Mérida)'로 실현되었다(Raúl Benítez Manaut 2009:177). 군사원조 프로그램인 메리다 이니셔티브는 마약·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14억 달러를 투자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통해 멕시코 상황에 우회적으로 개입한 셈 이었다(김은중 2010:14).

멕시코 국경에는 마약문제로 인해 2006년 취임한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 2006-2012)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멕시코-미국 국경지역은 준(準)전시상태와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기도 하였다(김은중 2010:11).

"전통적으로 마약밀매 쟁점은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외교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2008년 12월 미의회조사국은 미국-멕시코 관계에 대한 보고서에서 마약밀매, 이민, 국경, 무역, 인권 등을 주요 아젠다로 상정했다. 2009년 1월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멕시코의 칼데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두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마약밀매와 이민쟁점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9년 3월 미국무부 사령관이 상원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멕시코 마약조직에 의한 마약폭력이 멕시코 국경지대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 영토까지 확산되어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함께 마약조직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조성권 2009:41:42에서 재인용)."

조성권(2009:62)은 2009년 코카인의 90%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통되는 반면에 무기밀매의 90%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유통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멕시코로 밀반입된 무기들은 멕시코 국경지역의 마약조직들이 사용한다. 멕시코에서 마약조직이 국가에 정면도전하는 것은 그들이 마약밀매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으로 미국 산 무기를 구매하여 무장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는 국경보안에 있어 '공동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양자관계를 재정의 했다.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불안정, 폭력문제, 조직범죄 증가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가질 것을 제시하였고, 멕시코는 이 논의에 서명하였다. 애리조나-텍사스 지역은 폭력문제가 심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에서는 미국정부에게 멕시코 국경과의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의 재임기간 첫 3년 동안 폭력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에 이어 국경보안을

dCollection @ pufs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실행했으며, 과도한 통제는 계속되었다. 2010년~2011년 멕시코와 미국 양국은 국경의 불안정과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동책임을 가지고 협력했고, 마약을 단속하고 이를 예방할 정책을 실시했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양자협력을 촉진할 프로그램 '메리다 이니셔티브(Inciativa Merida)'를 실행했다. 메리다 이니셔티브는 시우닷 후아레스와 마따모로스 두 지역에 적용되었으나 문제점은 줄어들지 않았고, 효과는 미비했다(Jose María Ramos García 2012:8-11).

2009년 100여명이 살해되는 등 국경지역의 폭력문제가 발생한 소노라의 노갈레스(Nogales)에서는 마약을 운반하기 위한 '마약터널(narco túneles)'이 발견되기도 하였다(Jose María Ramos García 2012:24). 이러한 마약터널 문제는 현재에도 계속되어, 미국은 2013년 10월 캘리포니아의 샌 디에고-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띠후아나 간 국경지역에 마약을 통과시키기 위한 터널이 발견했다. 이 시설에는 환기시스템과 철도가 갖추어져 있었다. 최근 미국-멕시코 간 국경에는 카르텔에 의해 만들어진 70개 이상의 마약터널이 발견되고 있다.[20]

2010년에도 멕시코-미국 간에는 불법이민, 불안정, 폭력문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문제 등이 계속해서 대두되었다. 따라서 멕시코와 미국 두 정부의 국경관리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2010년에 비해 나아지긴 했으나, 2011년에도 여전히 시우닷 후아레스, 몬떼레이, 마따모로스의 폭력은 지속되었다(Jose María Ramos García 2012:8).

박정원(2009:28)이 지적했듯이 멕시코의 북부국경지역은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흐름과 이런 흐름을 불법이민 마약범죄조직이라는 혐의로 통제하려는 권력 사이에서 빚어지는 긴장과 갈등, 폭력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현재에도 국경보안을 위한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2013년 7월, 멕시코와 미국정부는 양국 국경지역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양 국은 여전히 국경보안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21]

---

20) 2013년 10월, 정부당국은 이 터널에서 마리화나 8톤, 코카인 150kg 이상을 압수했다.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3/10/131030_ultnot_california_tunel_droga_tijuana_san_diego_jg.shtml(기사검색:2013.12.03)

21)

dCollection @ pufs

멕시코는 미국뿐만 아니라, 2013년 과테말라와 '안전한 국경'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가지고, 양 국경지역의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것을 협약하였다.[22]

다음은 불법이민 문제이다. 강석영(2005:264)이 지적했듯이 멕시코와 미국이 당면한 현안 중에서 양국의 역사, 경제, 사회적 상황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있는 것은 불법이민이다.

불법이민을 포함한 이민문제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미국과 멕시코 두 정부 간 협상문제의 다수를 차지했다(Raúl Benítez Manaut 2011:188).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문제는 멕시코, 중미, 미국 간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민관련 문제에 대한 상호협력에는 어려움이 있다(Benítez Manaut, 2011:192).

국경에는 국가 간 통제의 문제도 있다. 미국의 국경통제는 멕시코 북부뿐만 아니라, 멕시코-중앙아메리카 국경까지 확대되고 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은 통과지점이 매우 많다. 이 국경은 사람뿐만 아니라, 무기·군수품·마약이 이동하는 통로이다. 또한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도 여겨졌다. 하지만 2010년 이 국경선은 단지 120여명의 경찰에 의해 감시되고 있었다. 당시 미국외교관은 멕시코-과테말라-벨리즈 국경을 돌아본 후, 멕시코 정부가 남부국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충분한 인적자원을 가지지 않다고 확인했으며, 이를 미국정부에 알렸다. 2010년 1월 미국정부는 멕시코·과테말라·벨리즈 세 국가가 함께 국경을 관리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23] 이처럼 미국은 멕시코-미국 국경보안 문제를 멕시코 남부국경으로 확대시켰다. 멕시코의 남부국경을 먼저 통과한 불법이민자와 마약은 멕시코의 북부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향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멕시코의 남부국경이 미국 국가안보의 취약점이라고 여기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

---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3/07/130723_ultnot_mexico_eeuu_frontera_seguridad_cch.shtml(검색일자:2013.07.28)

22) http://www.oem.com.mx/elmexicano/notas/n3083695.htm(검색일자:2013.11.16)

23) 멕시코 남부국경에는 최소 72개의 불법 국경통과지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미국외교관은 멕시코 남부국경지역을 돌아보면서 뗏목을 타고 불법으로 강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과 물건을 계속해서 목격하였다. 물건의 경우 밀수업자들이 남부국경의 해안과 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http://www.informador.com.mx/mexico/2010/256172/6/frontera-sur-de-mexico-puerta-abierta-al-trafico-de-armas-filtra-wikileaks.htm(검색일자:2013.12.03)

dCollection @ pufs

미국 간 국경을 통제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멕시코의 남부국경까지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개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멕시코 국경문제는 불법이민과 마약, 범죄, 국경보안으로 집중되고 있다. 북부국경지역은 미국의 주도아래 양국이 협력하여 국경을 통제하고 보안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멕시코의 북부국경뿐만 아니라, 남부국경까지 관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멕시코의 남부국경은 미국,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국가 안보의 관심사[24]"이기 때문이다.

24) http://www.elperiodico.com.gt/es/20121216/domingo/222149/(검색일자:2013.11.03)

dCollection @ pufs

Ⅳ. 멕시코 국경과 이민

4.1 국경을 통한 이민의 역사와 유형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국경지역은 주로 나가는 이민이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1848년~1930년까지는 국경이 자유스럽게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규제 이민이 이루어졌다. 1930년~1941년은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미국이 국경을 폐쇄하여 불법이민을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갈등이 증대된 시기였다. 1942년~1964년은 미국이 잠정적으로 국경을 통제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민이 자유롭던 시기였다. 1965년 이후는 법령에 의해 이민의 선별 및 규제가 강화된 시기였다. 이와 같이 멕시코인들의 미국이민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상황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었다(강석영 2005:265).

멕시코 혁명기간 동안 멕시코인들의 미국이민도 두드러졌다. 혁명기간인 1911년~1920년 사이 많은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피난을 갔다. 실제로 1911년~1925년 사이에 68만 명이 미국에 들어갔는데, 이 규모가 1910년 멕시코 인구의 5%에 해당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또한 멕시코인의 미국 이민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는데, 미국의 노동력 대부분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상황에서 멕시코의 노동력은 미국에게 필요한 요소였다. 멕시코 노동자들은 시계제작자, 기술자, 페인트 공, 배관공 등 산업과 서비스 영역에서 업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미국 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에서 고용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멕시코인들에게는 이민을 허용하지 않았다(주미영 2010:319-421).

멕시코인의 미국이민이 다시 합법적으로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멕시코의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부터였다. 이에 미국은 부족한 노동력을 멕시코인들로 채우기 위해 1942년~1946년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o Program)'을 실시했다. 또한 이때는 미국 남서부의 농

dCollection @ pufs

업이 발전한 시기로, 멕시코인들은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이지만 농업노동자로 일을 할 수 있었다.

1946년 브라세로 프로그램 만료 후 양국은 1948년부터 1951년까지 2차 브라세로 프로그램에 합의하였다. 이후 2차 브라세로 프로그램 종료가 다가오자 양국은 1951년 8월 새로운 브라세로 협정에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 내의 실업과 고용문제로 외국인, 특히 멕시코 노동자와 연관시키는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었고, 미국정부도 이민에 이중적인 입장을 취했다. 1964년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964년까지 총 458만 명의 멕시코인이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절정기였던 1956년에는 약 44만 명이 미국에 입국하였다(임상래 2013:60-62). 그러나 브라세로 프로그램으로 합법이민이 확대되었다고 해도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동안 불법이민자들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갔다.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일이 빈번해지자, 미국 의회는 멕시코로부터의 불법이민에 대처하기 위해 1965년 이민귀화법령을 제정하였고, 1976년, 1978년, 그리고 1980년에 계속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주종택, 2011:2-3).

'이민 및 귀화서비스(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 INS)'의 기록에 따르면, 1990년에 미국 내 멕시코 출신 불법이민자 수는 2,040,000만 명이었다. 1990년~2000년대 사이 182,000명이 추가되어 매년 9%씩 증가했다. 2000년~2007년에는 멕시코인들의 미국 불법이민이 연간 2.5%의 비율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까지 증가하던 불법이민은 이 시기부터 차츰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2007년~2010년 사이 매년 0.7%의 속도로 떨어지는 추세이다(Eliseo Díaz González 2013:249).

멕시코와 과테말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양국이 접하고 있는 국경지역은 역사적으로 주민, 문화 등이 같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부국경지역은 과거부터 과테말라인들의 이민이 주를 이루었다.

과테말라인들은 문화적 유사성, 유대감으로 멕시코 특히 남동부지역에서 합법적인 농업이민을 하기에 용이했고, 과테말라인들 또한 멕시코 국경지역으로의 이민을 선호했다(Guillermo Paredes Orozco, 2009:2-3). "이들은 같은

dCollection @ pufs

종족으로 국경이 있긴 했지만 이전부터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멕시코 국경당국도 이들의 불법입국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임상래 2013:107에서 재인용).”

남부국경지역의 초기이민은 주로 중앙아메리카인들의 일시적인 이주였다. 대부분은 치아빠스(Chiapas)의 소꼬누스꼬(Soconusco) 커피농장에서 농업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왔다.

중앙아메리카인들이 치아빠스 커피농장에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멕시코로 이주하기 시작한 현상은 세계 커피시장이 증대하면서 그 수요를 충족하려던 1880년대 때부터로 추정된다. 세계 커피시장이 활발해지기 전, 멕시코는 치아빠스 커피생산지와 멕시코 국내·외의 커피소비자들을 연결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를 건설했다. 이것은 이민의 흐름을 멕시코 남부의 다른 지역보다도 소꼬누스꼬로 집중되게 하였다(María de J. 2010:2).

또한 치아빠스의 곡물수확 시기는 11월~2월 사이이다. 이 기간에 과테말라 원주민들은 국경을 넘어 노동력을 제공했다(Pablo Salazar Mendiguchía, 2004:108).

깜뻬체와 따바스꼬는 1970년대부터 멕시코 만 해변의 석유산업이 확장되면서 다른 지역의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낀따나로는 1980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Riviera Maya’ 관광 붐이 일어 건축 및 서비스분야에서 일할 과테말라 노동자들이 필요해졌다(María Eugencia Anguiano Téllez, 2009:3-4).

남부국경지역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내전으로 인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멕시코로 이주해오기도 하였다.[25] 1980년대 초, 멕시코에는 과테말라 출신 피난민들 약 46,000여명이 이주해왔다. 이들은 처음 치아빠스에 정착했고, 1984년부터는 점차 깜뻬체와 낀따나로에도 자리 잡았다. 이들이 멕시코에 머무는 기간 동안 출산을 하면서 피난민 수는 더 증가했고,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약 30,00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1992년 과테말라 내전 종결 후, 1993년 멕시코는 자발적인 귀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멕시

25) 치아빠스에서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피난민들 약 100,000여명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Pablo Salazar Mendiguchía, “Migración en la frontera sur, una visión desde Chiapas”, Revista mexicana de política exterior(2004), p.108

dCollection @ pufs

코 난민구제위원회(Comisión Mexicana de Ayuda a Refugiado)'의 자료에 따르면 약 42,700명이 본국으로 귀환했고, 이때 많은 과테말라인들이 멕시코에 남기로 결정했다(Natalia Armijo Canto 2011:38-39).

위에서 언급한 노동이민자들의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면, 낀따나로는 여전히 'Riviera Maya' 관광산업으로 서비스업과 건축업에 많은 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따바스꼬, 깜뻬체, 유까딴(Yucatán)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농업과 경제팽창으로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소꼬누스꼬 농장의 농업노동자로 있던 이민자들은 그 분야가 점점 서비스업이나 건축업으로 바뀌거나, 미국으로 목적지를 바꾸었다. 오늘날에는 과테말라인들이 농업보다는 건축 및 서비스업과 가사도우미를 선호하는 추세이다(María Eugencia Anguiano Téllez, 2009:4-5).

과테말라 국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멕시코 국경도시에 '지역방문자'로 일시적인 이동을 한다. 이들은 치아빠스의 주요도시나 국경의 작은 도시들인 따빠출라(Tapacula), 시우닷 이달고(Ciudad Hidalgo), 딸리스만(Talismán), 뚝스뜰라 치꼬(Tuxtla Chico)등으로 가족관계,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로써 순환적인 이동을 한다. 일반적으로 과테말라 출신 국경 근로자들은 지역의 방문자로 임시이주를 한다. 주로 3가지 이민서류 '지역통행(el Pase Local)', '지역방문형태이민(la Forma Migratoria de Visitante Local, FMVL)', '농업형태이민(la Forma Migratoria de Visitante Agrícola)'[26]을 사용한다(Jéssica Natalia Nájera - Aguirre 2010:52). 즉 과테말라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의 멕시코 국경지역으로의 이주는 대부분 '일시적인 이주노동자'를 의미한다.

앞서 농업노동자로 있던 과테말라인들이 미국으로 목적지로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최근 과테말라인들 뿐만 아니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출신들도 남부국경을 넘어 멕시코에 들어온다. 몇몇은 최종 목적

26) '지역통행(el Pase Local)', '지역방문형태이민(FMVL)'은 치아빠스에 72시간 이하 머물 수 있는 문서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농업형태이민(la Forma Migratoria de Visitante Agrícola)'은 국립이민청(INM)이 숙박 및 농장노동활동을 허가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를 갖춘 사람만이 치아빠스 지역에서 농업노동을 할 수 있다. Jéssica Natalia Nájera - Aguirre, "Conociendo la Encuesta Migración en la Frontera Guatemala-México: alcances y limitaciones, Papeles de población, Papeles de población", Vol.16, No.63(2010), pp.52-53

dCollection @ pufs

지가 멕시코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미국으로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이주하는 것은 이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멕시코를 지나 미국으로 향하는 통과이민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이 엄격해지면서 중앙아메리카에서 멕시코를 통한 밀입국은 더 증가하였다(임상래 2013:107). 멕시코 국립이민청(INM)은 2010년 멕시코를 통과하는 이민자가 대략 140,000명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Telésforo Ramírez García, Manuel Ángel Castillo 20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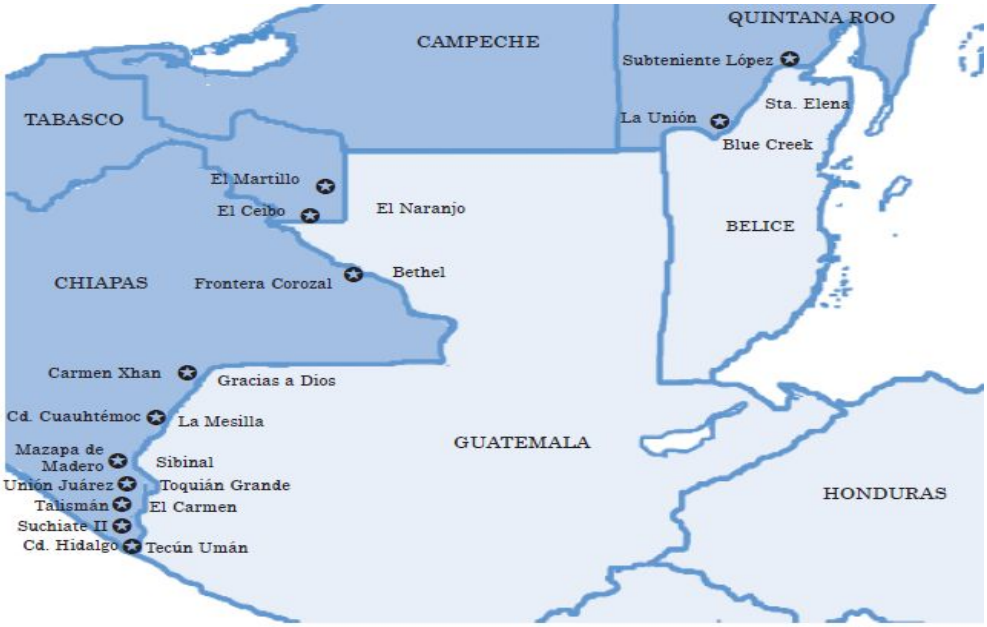
과거부터 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민은 양 국경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북부국경은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통해 멕시코인들이 미국 농업노동이민을 갔다. 이러한 합법적인 이민 외에도 불법이민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남부국경지역은 과거부터 중앙아메리카인들의 일시적인 농업노동이민이 활발했으며, 오늘날에는 건축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분야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이주는 주로 일시적인 방문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석유산업 및 관광산업 발달로 인해서 중앙아메리카의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특히 남부국경지역은 1990년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내전으로도 피난이민이 있었으며, 내전이 종결된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들과 멕시코에 남아있는 이들로 나뉘었다. 멕시코의 양 국경지역은 인접한 국가들과 성격에 따라 북부는 주로 나가는 이민, 남부는 들어오는 이민유형으로 다르게 발생했다. 또한 노동이민의 경우 영구적이기보다는 순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인들이 역외이민을 가장 많이 가는 국가는 미국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남부국경을 넘는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제 북부국경지역에는 멕시코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목적을 가진 중앙아메리카인들도 존재한다. 이렇듯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가려는 통과이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dCollection @ pufs

4.2 남부 주요 국경도시

[그림 7] 남부국경지역 주요도시



출처: EMIF SUR(2006), Encuesta sobre migración en la frontera Guatemala-México 2004, EMIF SUR, p.23

벨리즈와 접하고 있는 낀따나로 주의 무니시삐오인 체뚜말(Chetumal)의 숩떼니엔떼 로뻬스(Subteniente López) 다리를 통해 해마다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로 건너온다. 이들은 문서를 갖춘 합법적인 방문자들이며 관광객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벨리즈 간 국경은 다른 국경에 비해서 적은 사람들이 왕래하지만, 이 흐름은 끊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벨리즈 국경을 흐르는 온도(Río de Hondo)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은 몇몇의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외에는 대부분 미등록 방문자들이다(EMIF SUR 2006:17).

멕시코-과테말라 간 지역은 정글·강·산악지대 등으로 이루어져있어 지

dCollection @ pufs

리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각 지역마다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낀따나로는 산악지역으로 인구유입률이 매우 낮다. 깜뻬체는 뻬뗀(El Petén)정글로 이루어져있고, 통과하는 사람이나 불법이민자들이 적다. 양 국경이 접해있는 깐델라니아(Candelania)와 깔라끄물(Calakmul) 사이에는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인구가 적고,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양 국경에 연락하는 통로가 있어 오늘날 몇몇 범죄조직들의 마약 및 무기가 이동하는 경로가 되고 있다(EMIF SUR 2006:17-18). 깜뻬체는 대부분 밀림지역으로 알려진 이민경로가 없다.

과테말라와 접하고 있는 따바스꼬는 인구밀도가 낮지만 과테말라인과의 연락통로가 되는 곳이다. 따바스꼬는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아메리카인들이 멕시코로 들어오는 경로가 되고 있다. 이민자들은 이 지역의 떼노시께(Tenosique)를 거쳐 멕시코 중앙지역을 통과해 미국으로 간다(EMIF SUR 2006:18).

[그림 8] 남부국경지역 치아빠스(Chiapas)

출처: http://www.explorandomexico.com/map-gallery/

dCollection @ pufs

치아빠스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면적이 654㎢(남부 국경선의 58%를 차지)로 가장 넓고, 생태·민족·문화가 매우 다양하며, 이민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국경지역은 많은 지역 방문자들, 임시계절 노동자들, 미국으로 가려는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이 건너오는 국제적인 공간이다. Pablo Salazar Mendiguchía(2004:112)는 치아빠스가 중앙아메리카 국가와의 교류(intercambio)가 일어나는 공간이며, 이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국경지역 중에서도 이민이 가장 활발한 치아빠스의 소꼬누스꼬는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 연결되는 거대한 고속도로와 철도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Ma. Eugencia Ramírez Parra 2003:1). 이 도로와 철도는 1880년대 이후 치아빠스가 멕시코 국내·외의 커피소비자들과 커피생산지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했다. 오늘날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은 따빠출라의 철도를 이용해 멕시코시티를 지나 미국까지 간다. 따라서 이 지역의 철도는 멕시코 남부에서 중앙지역으로 들어가는 수단이자, 멕시코 영토를 통과하는 방법으로써 새로운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María de J. 2010:2). 또한 소꼬누스꼬와 과테말라를 연결하는 해안경로는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들도 이용한다(Olivia Ruiz Marrujo, Coautoria de fa Red de fas Casas del Migrante-ScaLabrini, 2001:12). 이러한 이유로 소꼬누스꼬는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기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통로'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렇듯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소꼬누스꼬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멕시코 당국이 불법이민자들을 약 10만 명을 체포되기도 하였다(Ma. Eugencia Ramírez Parra, 2003:1). 치아빠스의 빨렝께(Palenque)역시 북부로 가는 이민자들이 철도를 이용하기위해 통과하는 주요도시이다.

치아빠스의 따빠출라는 과테말라 국경과 42km 거리에 있으며, 아즈떼까(Azteca)로 들어가는 관문이다.[27] 다른 한편으로 따빠출라와 뚝스뜰라 구띠에레스(Tuxtula Gutiérrez)에는 건설현장의 인부,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서 인접국의 이민자들이 들어온다. 따라서 따빠출라는 미국으로 가려는 통과이민자들이 통과하는 도시인 동시에, 일자리를 구하는 목적지가 되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7) http://www.oem.com.mx/lavozdelafrontera/notas/n3175675.htm(검색일자:2013.11.02)

dCollection @ puf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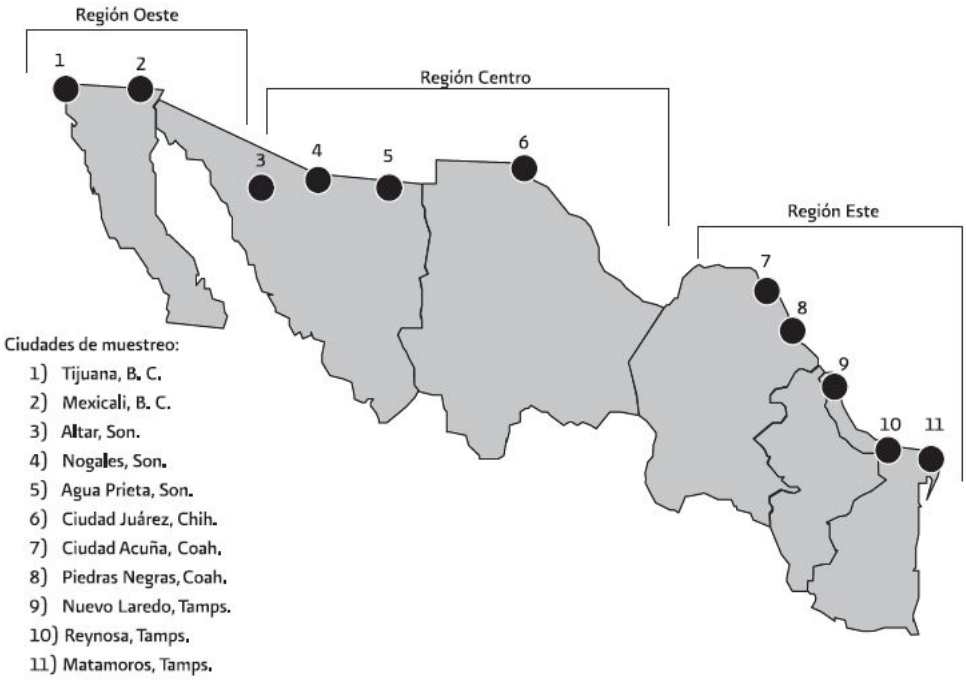
치아빠스의 아리아가(Arriaga)는 과테말라 떼꾼 우만(Tecún Uman)과 42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아리아가는 멕시코의 중앙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할 오아하까와 인접해있어 따빠출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무니시삐오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민자 보호소인 '자비의 집(Hogar de la Misericordia)'이 있다.[28]

28) http://www.oem.com.mx/lavozdelafrontera/notas/n3175675.htm(검색일자:2013.11.02)

dCollection @ pufs

4.3 북부 주요 국경도시

[그림 9] 북부국경지역 주요도시



출처: EMIF NORTE(2012), Encuesta sobre Migración en la Frontera Norte de México 2010, Serie analizada 2003 a 2010, EMIF NORTE, p.30.

과거 바하 깔리포르니아의 띠후아나와 치와와주에 있는 씨우닷 후아레스는 멕시코 남부 및 중부지역 도시들에서 오는 이주자들의 목적지가 되는 도시였다. 이 도시들은 무역, 서비스업, 마낄라도라 산업에 기반 한 경제발전으로 멕시코 국내·외 이민자들을 끌어들였다. 또한 두 도시는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 오는 도시이기도 하였는데 1990년대 띠후아나에서 이민자들 중 45%, 시우닷 후아레스에서는 15%가 미국으로 들어갔다(EMIF NORTE 2013:12-13). 즉 띠후아나와 씨우닷 후아레스는 이민자들에게 목적지가 되는

dCollection @ pufs

동시에 통과지가 되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미국으로 가려는 불법이민자들이 전통적으로 통과하던 도시는 띠후아나, 씨우닷 후아레스 뿐만 아니라 누에보 라레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애리조나와 접하고 있는 소노라주의 무니시삐오 산 루이스 리오 꼴로라도(San Luis Río Colorado), 알따르(Altar), 노갈레스(Nogales), 아구아 쁴리에따(Agua Prieta), 엘 사사베(El Sásabe), 소노이떼(Sonoyta), 사릭(Sáric), 나꼬(Naco), 까나네아(Cananea)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경로로 변화했다. 특히 소노라의 알따르, 까나네아 같은 도시에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불법이민자들의 커뮤니티 망이 존재하고 있다(EMIF NORTE 2013:16).

미국 텍사스와 370km를 접경하고 있는 따마울리빠스는 이민현상이 일어나는 주요한 도시이다. 과거 따마울리빠스의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의 농업분야의 일자리를 찾아 이민을 갔다(Simón Pedro Izcara-Palacios 2012:5). 따마울리빠스는 레몬류 재배지역이[29] 있는데 초반에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노동자로 일했지만 점점 베라끄루스, 산 루이스 뽀또시, 치아빠스의 이주자들이 들어와서 일하였다(Karla Lorena Andrade Rubio, Simón Pedro Izcara Palacios 2013:5). 따라서 따마울리빠스는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지역들 중 하나였으며, 이들이 미국이민을 나가면서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대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따마울리빠스는 미국으로 가려는 중앙아메리카인들의 주요 이민경로이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따마울리빠스의 무니시삐오 산 페르난도(San Fernando)는 이민자들이 치아빠스에서 출발하여 베라끄루스를 관통해 북부국경도시인 레이노사(Reynosa), 마따모로스(Matamoros)로 가기위해 의무적으로 통과해야하는 도시였다. 하지만 2010년 72명의 이민자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로 산 페르난도로 가기를 꺼려하는 이민자들 몬떼레이(Monterey)로 이민경로를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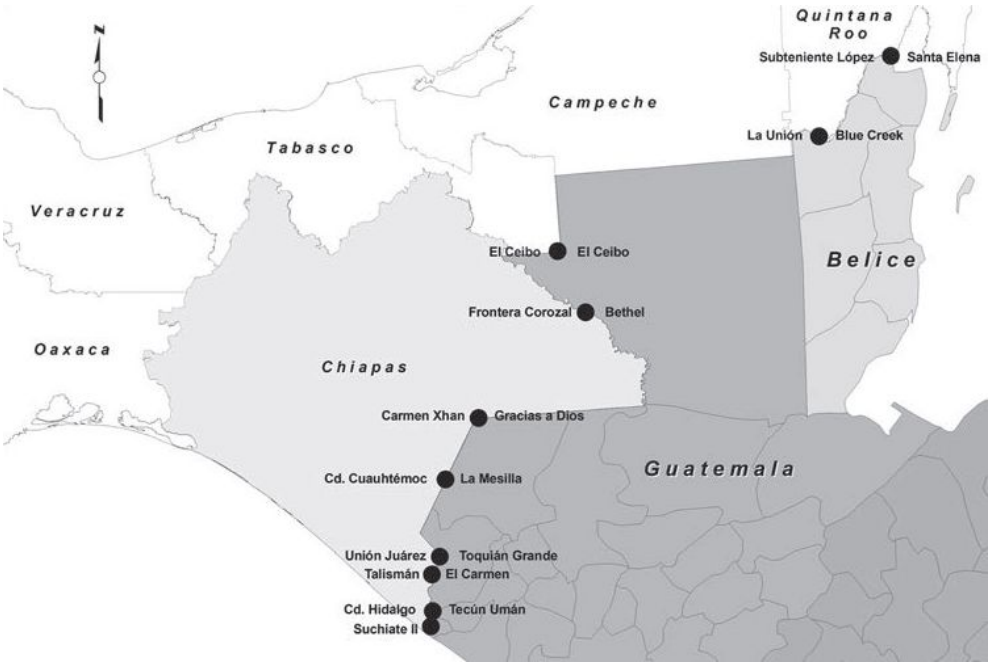
29) 구에메스(Güeméz), 이달고(Hidalgo), 빅또리아(Victoria), 빠디야(Padilla), 예라(llera)로 총 면적이 23,500헥타르에 이른다. Karla Lorena Andrade Rubio, Simón Pedro Izcara Palacios, “Valoranción de las fuerzas armadas por los transmigrantes centroamericanos asentados en Tamaulipas(México)” XI Congreso Nacional de Sociología. Celebrado en la Facultad de Ciencias Políticas y Sociología de la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2013) p.5

dCollection @ pufs

따라서 치아빠스와 베라끄루스를 통과한 중앙아메리카인들은 몬떼레이에서 기차를 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경로에도 범죄그룹이 존재하는데, 이민자들은 이들의 감시를 피하거나 도망쳐 따마울리빠스의 레몬류 재배지역으로 들어가 미국으로 갈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돈을 벌기도 한다(Karla Lorena Andrade Rubio, Simón Pedro Izcara Palacios 2013:5).

4.4 국경의 통과지점과 통과이민 경로

[그림 10] 멕시코 남부국경의 공식 통과 지점



출처: EMIF SUR(2013), Encuesta sobre migración en la frontera sur de México 2011, Serie Histórica, 2006-2011, EMIF SUR, p.30

멕시코의 남부국경은 많은 통과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 국경의 특징을 말할 때, 스페인어의 'porosidad'인 '다공질'이란 단어로 설명한다. 따라서 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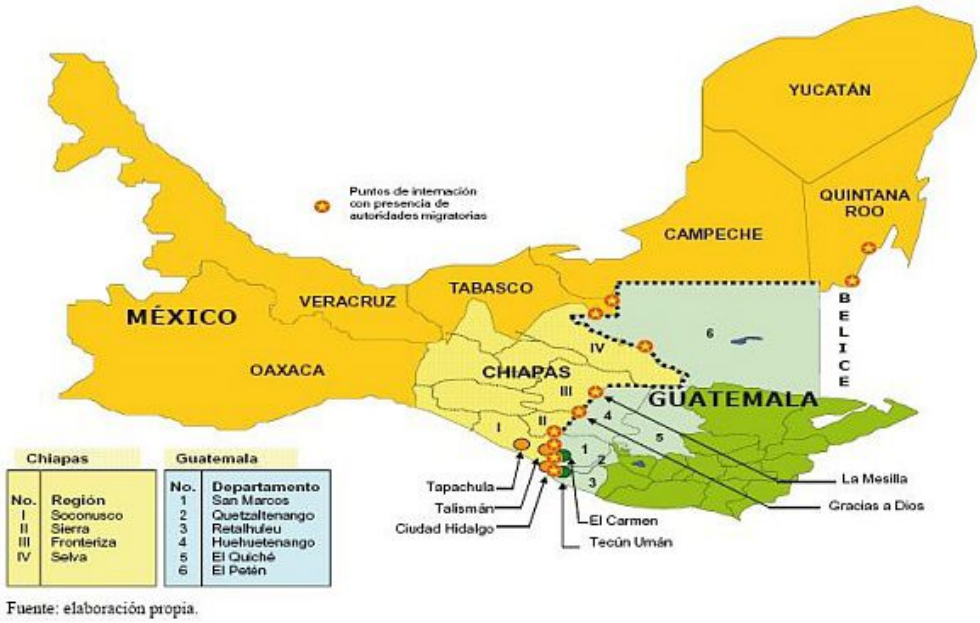
dCollection @ pufs

코 남부국경은 “다공질의 열린 국경(Raúl Benítez Manaut, 2011:191)”으로 표현되어 왔다.

멕시코의 남부국경에 공식적인 통과지점은 10곳이다. 치아빠스 7개, 따바스꼬 1개, 낀따나로에 2개가 있으며, 과테말라와 200km를 접경하고 있는 깜뻬체에는 공식적인 통과지점이 없다(Natalia Armijo Canto, 2011:37). 멕시코-과테말라 간 658.5km의 긴 국경에는 차량으로 용이하게 건널 수 있는 32개의 통과지점이 있다. 그 중 법률에 의거하여 걸어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수치아떼(Suchiate) 2개, 뚝스뜰라 치꼬(Tuxtla Chico) 1개, 꼬말라빠(Frontera Comalapa)에 1개가 있다(Pablo Salazar Mendiguchía, 2004:109). 그 외에도 남부국경의 비공식적인 통과지점은 40~7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테말라와 멕시코 치아빠스에는 양국의 국경도시가 접하고 있다. 시우닷 이달고-떼꾼 우만(Tecún Umán)과, 딸리스만-엘 까르멘(El Carmen)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씨우닷 이달고(Ciudad. Hidalgo)와 딸리스만(Talismán) 두 도시는 이민자들의 주요 통과도시가 되어왔다.

[그림 11] 멕시코 치아빠스와 과테말라 접경도시



Chiapas	
No.	Región
I	Soconusco
II	Sierra
III	Fronteriza
IV	Selva

Guatemala	
No.	Departamento
1	San Marcos
2	Quetzaltenango
3	Retalhuleu
4	Huehuetenango
5	El Quiché
6	El Petén

Fuente: elaboración propia.

dCollection @ pufs

출처: Jéssica Natalia Nájera - Aguirre(2010), Conociendo la Encuesta Migración en la Frontera Guatemala-México: alcances y limitaciones, Papeles de población, Papeles de población, Vol.16, No.63, p.51.

[그림 11]은 멕시코 치아빠스와 과테말라의 국경도시들이 접해있는 모습이다. 미국으로 가려는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이 지역을 이용하여 국경을 통과한다. 이 지역에서 통과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주요 도로가 있으며, 지역경제가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Jéssica Natalia Nájera - Aguirre 2010:50).

과테말라-멕시코 치아빠스 간 국경을 통과하는 경로는 Ana Silvia Alfonzo Melgar(2008)에 따라 해안, 중앙, 남동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해안경로는 다시 2개의 길로 나뉜다. 먼저 과테말라의 떼꾼 우만 - 씨우닷 이달고 - 따빠출라 - 아리아가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다음은 과테말라의 까르멘 - 딸리스만 - 따빠출라 - 아리아가까지 향하는 길이다. 둘째 치아빠스의 중앙지역을 통과하는 경로는 과테말라의 라 메시야(La Mesilla)- 멕시코 시우닷 구아떼목(Ciudad Cuautémoc) - 꼬미딴 - 뚝스뜰라 구띠에레스로 들어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치아빠스의 남동부를 통하는 경로는 치아빠스와 따바스꼬가 인접해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방법이다.

위 [그림 11] 치아빠스의 Ⅰ지역은 소꼬누스꼬이다. 지난 수 년 동안 통과이민경로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꼬누스꼬는 여전히 주요 통과지점이다. 이렇듯 치아빠스의 남동부지역은 통과이민자들의 주요한 통과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2005년 말 Stan이라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Chiapas-Mayab 열차의 작동이 중지되었다. 이 사건은 이민자들의 주요경로가 사라진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은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의 경로의 분산시켰고, 따바스꼬와 깜뻬체의 해안 길이 새로운 중요 통과이민경로가 되기도 하였다(Jéssica Natalia Nájera - Aguirre 2010:53).

많은 통과이민자들이 해안경로를 이용한다. 치아빠스의 철도를 이용하여 따빠출라에서 아리아가까지 간다. [그림 11] 치아빠스의 Ⅱ에 표시되어진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산악지역을 통과하는 경로는 꼬미딴과 뚝스뜰라

dCollection @ pufs

를 통하는 길이지만, 이 경로는 위험하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뽀예로(pollero)'[30]망이 있는 치아빠스의 도로를 이용하는 경로는 중요하다. 이 길은 시우닷 구아떼목을 통과해서 뜨린따리아(La Trintaria), 꼬미딴, 알또스(Altos), 치아빠스 밀림, 마띠아스 로메로(Matias Romero)를 거쳐 오아하까 주까지 향한다. 밀림을 통한 경로는 조금 제한되기는 하지만 까르멘(Carmen)을 통과해 꼬미딴, 라깐똔 정글을 지나쳐 베라끄루스로 가는 길이다. 바다를 이용한 경로는 빠르지만 위험하다(Cynthia Marisol Vargas Orozco, Karla Villarreral Sotero 2007:42). 또한 최근의 새로운 이민경로는 유까딴의 메리다(Mérida)에서 온 기차가 통과하는 따바스꼬의 떼노시께(Tenosique)이다(EMIF SUR 2013:61).

[그림 12] 통과이민 경로

출처: http://www.libertad.org/la-tragedia-humana-de-la-inmigracion-ilegal-4946(검색일자:2013,10.31)

30)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를 미국에 보내는 운반책

dCollection @ pufs

[그림 12]는 이민자들이 멕시코를 통과하는 경로이다. 통과이민경로는 크게 동쪽, 중앙, 서쪽 지역으로 나뉜다. 치아빠스와 따바스꼬의 국경지역을 통과한 이민자들은 오아하까와 베라끄루스를 이용해 멕시코의 중앙지역으로 들어간다. 동쪽은 아리아가에서 오아하까의 시우닷 익스떼뻭(Ciudad Ixtepec)을 지나 과달라하라(Guadalajara), 바하 깔리포르니아 혹은 소노라 지역을 지나는 경로이다. 서쪽경로는 아리아가 혹은 떼노시께를 베라끄루스를 지나 따마울리빠스까지 가는 경로가 있다.

이동하는 이민자들은 멕시코의 국경지역 뿐만 아니라, 중앙의 다른 도시들을 지나가게 된다. 특히 오아하까, 베라끄루스, 멕시코시티, 산루이스뽀또시, 과나후아또 등은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도시로 나타난다.[31]

이렇듯 중앙아메리카의 이민자들은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여 멕시코 남부국경을 통과한다. 통과지점이 많은 만큼 국경을 넘는 수단도 다양하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국경지역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주요 도시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과경로가 되는 국경도시들도 자연재해, 범죄문제 등으로 조금씩 변화하기도 한다. 남부의 치아빠스와 따바스꼬 국경을 통과한 이민자들이 북부국경까지 가는 경로는 다시 여러 개로 나뉜다. 북부국경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이 반드시 통과하던 도시들에서 범죄문제, 미국으로 가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20~30년 동안 미국으로 가려는 통과이민 현상은 증가했고, 통과 방법과 이민 경로와는 다양하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31) Encuestas sobre Migración en las Fronteras Norte y Sur de México. http://www.colef.net/emif/tabuladossur.php(검색일자: 2014.04.06)

dCollection @ pufs

Ⅴ. 이민과 국경의 변화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이민은 일상이고, 이민현상은 국경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에는 국제이민, 특히 미국으로 가려는 통과이민으로 인해 이 지역은 변화하고 있다.

5.1 국경통제와 보안

5.1.1 불법 이민자 통제

멕시코 북부국경의 경우 미국의 이민법에 따라 불법이민자들을 통제해왔고, 미국의 주도아래 국경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멕시코 남부국경의 통제와 관리도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자유화를 실행하려는 것과는 달리, 이민정책을 강화하고 불법이민자를 통제하려는 모순된 자세를 취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인 1993년,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미국 국경순찰병은 약 4,200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약 8,000여명으로 증가했다.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과 접경하고 있는 국경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Natalia Armijo Canto 2011:42). NAFTA로 재화와 물자는 자유롭게 국경을 오가지만, 이민자는 그렇지 못했다. 미국의 정책은 경제, 무역, 교역 등의 문제에 치중하고 이민문제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즉 미국은 불법이민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멕시코 역시 1990년대 이후, 이전과는 달리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이민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1980년 남부국경지역에 '난민구제위원회(Comisión Mexicana de

dCollection @ pufs

Ayuda al Refugiado, COMAR)'를 창설하고, 1980년~1993년까지 내전으로 인한 중앙아메리카 난민들(특히 과테말라인)을 받아들였다(Soledad Álvarez Velasco 2009:4).

1980년대 후반, 멕시코 정부는 비록 느슨하긴 했지만 남부국경의 이민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이민자들 대부분을 합법적으로 등록시켰고, 정부가 개입하여 불법이민자들을 이민지역과 국경지역 사회 및 노동력에 좋은 조건으로 등록시키려는 새로운 문서를 발행했다. 쉬운 과제는 아니었지만 많은 이민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Rodolfo Casillas 2011:146).

그러나 1990년대 멕시코는 남부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남부에서 북부로 가려는 이민자를 통제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수립했다. 1990년대 초 멕시코 '국립이민청(INM: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의 창설[32]은 새로운 이민법의 물질적·상징적인 행동이었다(Rodolfo Casillas R. 2008:160-161). 특히 이 시기부터 멕시코는 멕시코-과테말라 간 국경이 중앙아메리카인들이 통과하는 국제적인 공간임을 인식했다. 당시 남부국경을 통과하는 이민자들의 출신국가는 과테말라가 57%, 벨리즈가 28%로 국경을 접경한 두 국가가 85%를 차지하고 있었다(María Eugencia Anguiano Téllez, 2009:5). 이렇듯 당시에는 멕시코 남부국경을 통과하는 이민자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과테말라와 벨리즈 출신이 대다수였다.

1994년 NAFTA가 발효되면서 멕시코는 중앙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강화하기도 했다(Soledad Álvarez Velasco 2009:4).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멕시코는 남부국경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2007년 국립이민청(INM)의 한 위원은 멕시코가 국경을 통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도 언급하였는데, 2001년 9.11 테러 후 미국이 국경을 통제하고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는 멕시코 정부의 '국경 관리'문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그동안의 '열린 국경 정책'을 멈추었고, 멕시코의 국경은 국가의 통제능력이 함께하는 법적공간으로 변화되었다(Natalia

32) 국립이민청을 창설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돕기 위한 '베타그룹(el Grupo Beta)'을 북부국경지역 띠후아나에 설립했다.

dCollection @ pufs

Armijo Canto 2011:43).

멕시코는 2001년~2003년 동안 남부국경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인 '남부계획(Plan Sur)'[33]을 실행했다. 남부계획은 2001년 7월, 문서를 갖추지 않은 이민자들의 입국을 제지하고,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발표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이 계획으로 멕시코 남부 떼우안떼뻭 지협(Istmo de Tehuantepec)을 폐쇄하여 남부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들을 막으려했다. 남부계획의 주요 목적은 불법이민자 제지, 국경지역의 인신매매 방지, 밀수 적발 수 증가 등 국경의 관리 및 검사를 강화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부패한 공무원(과테말라 포함)의 남용을 줄이고, 범죄조직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2003:18).

멕시코는 먼저 남부국경지역에 있는 국립이민청(INM) 사무소를 보수하여 현대화하고, 베라끄루스의 아까유깐(Acayucan), 낀따나로의 체뚜말에 국립이민청 사무소를 추가 설립했다. 또한 감시소를 설치하여 불법이민자들의 주요경로를 봉쇄했다. 그리고 남부계획으로 북부국경지역에만 위치해 있던 '베타그룹(el Grupo Beta)'[34]을 치아빠스의 아리아가, 베라끄루스의 아까유깐, 오아하까의 따빠나떼뻭(Tapanatepec), 낀따나로의 체뚜말에 추가로 설립했다.[35]

멕시코는 남부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 가용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각 주(치아빠스 따바스꼬, 유까딴, 베라끄루스, 오아하까), 국경지역의 부

33) 멕시코 내무부(Secretaría de Gobernación), 외무부(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검찰청(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국가안보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Seguridad), 국가정보원(Centro de Investigación y Seguridad Nacional) 등이 참여했다.

34) 국립이민청(INM)은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1990년 북부국경지역 띠후아나에 '베타그룹(el Grupo Beta)'을 설립했다. 1994년에는 노갈레스(Nogales), 1995년 떼까떼(Tecate), 마따모로스(Matamoros)에 추가로 설립되었다. 그 이후에 9개 주 바하 깔리포르니아, 소노라, 치와와, 꼬아우일라, 따마울리빠스, 베라끄루스, 따바스꼬, 치아빠스, 오아하까 등으로 확대되어, 현재에는 21개의 베타그룹이 있다. 베타그룹은 이민자들을 구조하고, 응급처치 및 인권에 대한 기본지식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민자에게 제공한다. 이민자를 보호하는 베타그룹 설립의 법적근거는 2011년 5월 25일에 발표된 이민법 71조에 규정되어 있다.
http://www.inm.gob.mx/index.php/page/Grupo_Beta(검색일자:2013.03.19)

35) http://bibliotecadigital.conevyt.org.mx/colecciones/documentos/migracion/frontera_sur.pdf

dCollection @ pufs

처 간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 이 계획에는 멕시코의 연방보호 경찰, 주와 무니시삐오 경찰, 사법경찰, 육군 및 해군, 국립이민청(INM)의 사무관, 베타그룹이 참여했다. 남부계획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국경지역에서 남부계획의 목적에 따라 정보 작업을 하고, 획득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동 작업을 했다. 남부계획은 국경을 감시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타그룹을 통해 이민자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 국가와 미국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였다(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2003:18).

이를 통해 멕시코는 당시 이민자들을 막으려는 계획뿐만 아니라, 국경지역에서의 범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북부국경지역에 설립되었던 베타그룹은 남부계획으로 남부국경지역까지 확대되어 추가설립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이민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이 북부국경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어 남부로 확대되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멕시코는 2001년 남부계획을 시작으로 통과이민자를 억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이민자들을 체포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멕시코는 새로운 탐지기법으로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Rodolfo Castillas R 2011:146).” 체포된 이민자들(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은 멕시코 남부의 따빠출라에서 국립이민청에 의해 감시되는 버스 혹은 민간 기업이 경비를 맡은 버스로 본국으로 안전하게 소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멕시코 중앙 및 북부지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 또한 따빠출라로 보낸 후 본국으로 송환시켰다(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2003:19).[36] 남부계획으로 인해 국외로 추방되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해 2005년에는 그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했고, 총계가 25만 명에 달했다(Rodolfo Casillas 2011:146).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경찰과 군대, 이민정책 관리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남

36) 2001년 5월~6월 20일 사이에 씨우닷 구아떼목-까르멘 국경지역에서 과테말라 불법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소환했다.
http://bibliotecadigital.conevyt.org.mx/colecciones/documentos/migracion/frontera_sur.pdf

dCollection @ pufs

부계획의 부정적인 면과 남부국경을 통제하는 것이 이민자들을 더욱 위험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며, 남부계획이 이민자들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2003:19). 이러한 의견대로 멕시코가 남부국경을 통제하면서 오히려 이민자들은 뽀예로가 안내하는 더 위험한 새로운 경로를 이용하게 되었다(Natalia Armijo Canto 2011:45-46).

국립이민청(INM)은 남부계획으로 이민흐름이 감소했고, 멕시코 국경을 다시 통과하려는 시도를 억제했으며, 국경지역의 범죄율이 하락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공무원이 저지른 부패와 남용을 감소시켰다고 남부계획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Rodolfo Casillas는 남부계획의의 영향과 범위를 분석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고, 남부계획을 실행하는 기간 동안 국경지역의 호텔과 식당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정부가 폐쇄한 주요경로 대신에 이민경로가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경지역의 범죄 예방, 공공안전을 개선, 공무원의 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군대와 경찰을 파견하는 것은 이민을 범죄화 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점들이 국경지역에서 이민자들의 위험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민자를 차별하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인 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37]

남부계획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민자 구금 및 추방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멕시코는 2006년 따빠출라에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불법이민자 구금시설을 구축하기도 했다(Soledad Álvarez Velasco 2009:4).

5.1.2 국경보안과 협력

Raúl Benítez Manaut(2011)는 멕시코의 두 국경이 이민현상과 조직화된 범죄로 인해 국가안보의 취약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37) http://bibliotecadigital.conevyt.org.mx/colecciones/documentos/migracion/frontera_sur.pdf p.30

dCollection @ pufs

한 범죄는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된다.

멕시코는 남부국경을 통제하기 위해 과테말라, 벨리즈와 많은 협정을 체결해왔다. 하지만 정글 및 산악지대 등의 지리적 조건, 제도의 결함, 부패 등으로 인해 국경을 보호하기에 많은 장애물이 존재했다. 과테말라, 벨리즈 정부는 멕시코 국경을 법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Raúl Benítez Manaut, 2011:182).

멕시코와 미국은 3,200km 길이의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고, 매일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 외에도 불법 이민자와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가며, 반대로 미국의 불법무기는 멕시코 마약조직에게 들어간다. 2013년 7월, 멕시코와 미국정부는 국경안보를 강화하고, 양국 국경지역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했다.[38]

2013년 뻬냐 니에또(Peña Nieto) 정부는 멕시코에 있는 과테말라 이민자들을 위해서 합법적인 지위를 포함한 새로운 남부국경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멕시코 당국은 새로운 관리방법으로 멕시코-과테말라 간 국경에 공식적인 통과지역을 순찰할 5,000~8,000명의 국경경찰을 만들 예정이다. 이는 미국과 멕시코 간 워싱턴 회담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 미국은 조직범죄와의 싸움에서 멕시코-중앙아메리카 국가 간 국경보안을 위해 교육 자원 기술 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39] 멕시코 역시 국경을 감시할 인력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미국-멕시코 간 국경뿐만 아니라, 멕시코 남부국경까지 통제하려고 한다. 멕시코 북부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불법이민자와 마약은 멕시코 남부국경을 먼저 통과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멕시코의 남부국경이 미국 국가안보의 취약점이라고 여기고 있다.

2013년 멕시코와 과테말라는 국경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멕시코시티에서 회의를 가졌다.[40] 멕시코, 과테말라 양국은 국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두 국가의 관련법을 통합하고, 법집행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38)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3/07/130723_ultnot_mexico_eeuu_frontera_seguridad_cch.shtml(검색일자:2013.07.22)

39) http://www.elperiodico.com.gt/es/20121216/domingo/222149/(기사검색:2013.11.03)

40) 이 회의에서 과테말라는 경제 및 교육, 자국 이민자들의 인권문제도 포함시켰다.

dCollection @ pufs

았다. 양국은 안전한 국경을 만들기 위해 큰 변화보다는 밀수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양국 간 국경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신매매, 폭력, 마약밀매 및 국경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잠재적인 범죄 등 주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따라서 양국은 이민에 관한 정확한 정보, 공공정책, 공동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장·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협약했다.[41]

2013년 5월과 6월에 '높은 수준의 안보(el Grupo de Alto Nivel de Seguridad, GANSEG)'프로그램의 실무회의를 가졌다. 회의의 논의는 이민과 국경, 인권, 국제안보와 테러, 조직범죄, 법률 협력, 공공안전 등이었다. 양국의 대표는 GANSEG 프로그램을 동의하고, 두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 해 낼 것을 약속하였다.[42]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와 과테말라가 "안전한 국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협의한 후, 2013년 11월 6일, 과테말라는 이를 공식적으로 비준하였다. '높은 수준의 안보(GANSEG)'프로그램을 통해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GANSEG는 이민, 국경분쟁, 국제안보, 테러안보, 조직화된 범죄와 법적협력, 공공안전, 국경안전, 세관, 범죄예방 등에 초점을 두어 하위그룹을 구성하였다. 또한 국경감시단(Grupo Biliteral de Seguimiento)을 파견하여 양 국경의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43]

2013년 11월, 멕시코는 과테말라와 인접해 있는 남부국경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 400여명을 파견하기도 했다.[44]

41) http://www.oem.com.mx/elmexicano/notas/n3083695.htm(기사검색:2013.11.16)
42) http://embamex.sre.gob.mx/guatemala/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00:ganseg2013&catid=83:junio-2013&Itemid=199(기사검색:2014.02.23)
43) http://www.oem.com.mx/elheraldodechiapas/notas/n3184198.htm(검색일자:2013.11.16)
44) http://www.oem.com.mx/laprensa/notas/n3086744.htm(검색일자:2013.11.16)

Collection @ pufs

5.2 국경의 위험

앞서 밝혔듯이 멕시코는 불법이민자를 통제하는 동시에 국경지역의 범죄율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지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범죄 문제는 줄어들지 않았다.

5.2.1 국경통과의 위험 증가

이민자들은 먼저 국경을 통과하면서부터 위험을 겪는다. 2011년 '멕시코 국경이민에 관한 설문조사(EMIF)'에서는 추방된 중앙아메리카 출신 불법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남부국경 통과 방법을 조사하였다.

[표 4] 2011년 중앙아메리카 불법이민자들의 멕시코 남부국경 통과 방법

국경 통과 수단	합계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타이어·튜브이용 혹은 헤엄	22,866	10,665	6,229	5,971
도보	22,621	19,166	2,777	678
바다에서 보트·선박 이용	8,431	9	7,720	702
버스·소형트럭	1,209	55	255	900
기타	651	104	488	60
지정하지 않음	12	12	-	-
합계	55,790	30,011	17,469	8,310

출처: Migrantes centroamericanos devueltos por las autoridades migratorias mexicanas, 2011. Dimensión geográfica, temporal, estancia y de cruce, según país de residencia, flujo total entrevistado.
http://www.colef.net/emif/tabuladossur.php

[표 4]를 보면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다양한 수단으로 멕시코 남부국경을 통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경을 통과하는 방법은 자동차 타

dCollection @ pufs

이어튜브 이용하거나 혹은 헤엄쳐 강을 건너는 비율 41%, 걸어서 국경을 넘는 비율 40%, 바다에서 보트나 선박을 이용하는 비율 15.1%, 버스나 소형트럭을 이용하는 비율 2.2%, 기타 1.2%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불법이민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경을 통과하고 있고, 의외로 많은 수가 걸어서 혹은 하천을 헤엄쳐 건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이민자들이 국경을 통과하면서 위험해질 수 있다.

멕시코-과테말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수치아떼(Suchiate)의 입구는 남부국경지역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무역활동이 95%이상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멕시코의 가솔린과 식료품은 과테말라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이민자와 마약은 북쪽, 즉 멕시코로 이동한다. 멕시코의 군인, 경찰, 국경순찰대는 합법적으로 수치아떼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관리한다. 수치아떼 강은 합법적인 통과 외에도 불법이민자들이 국경을 넘는 장소이지만 불법 활동을 감지하기는 어렵다. 멕시코 남부국경을 통과하는 이민자들의 위험은 수치아떼 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민자들이 뗏목을 타고 수치아떼 강을 건널 때 누군가 돌을 던지거나 해를 끼쳐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다. 실제로 20여명의 이민자들을 태운 보트가 침몰해도 이것을 감추거나, 주민들 중 누구도 강변으로 다가가 살펴보지 않았다. 또한 이민자들은 국경을 건너는 경로(바다, 강, 길)에서 사망하지만 멕시코에서 사망한 이민자들의 정확한 통계는 없다.[45] 이러한 이유로 '연방정보보호국(el Instituto Federal de Acceso a la Información y Protección de Datos, IFAI)'은 멕시코 국립이민청(INM)이 1995년~2012년 동안 멕시코 내에서 사망한 이민자 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46]

멕시코의 북부국경지역은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으로 인해 국경을 통과할 때 위험이 존재한다. 미국의 국경통제가 강화되면서 북부국경을 넘는 이민자들 역시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찾게 되었다. 앞서 최근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로가 전통적인 장소

45) http://www.bbc.co.uk/spanish/especiales/humanrights/pesadilla.shtml(검색일자:2013.11.03.)

46) http://www.oem.com.mx/elheraldodechiapas/notas/n3187793.htm(검색일자:2013.11.16)

dCollection @ pufs

들에서 멕시코 소노라(Sonora)-미국 애리조나(Arizona)지역으로 변화했음을 언급했다.

소노라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황량하며 위험한 사막 중 하나이다. 이 사막은 멕시코와 미국을 통과하는 311,000km지역을 덮고 있다. 미국 4개 카운티에 걸쳐있는 애리조나 사막을 통한 3,145km의 긴 경로는 가장 위험하지만, 이민자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 경로를 이용한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의 긴급통화 911에는 이민자들의 구조요청 전화가 온다. 이들은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기 위해 해마다 멕시코 북부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이민자들이다. 불법이민자들은 사막의 타는 듯 한 뜨거움과,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를 견뎌야 한다. 미국 인권단체인 'No More Deaths'에 따르면, 매년 남성·여성·어린이를 포함한 이민자들 150~250여명이 이 사막을 통과하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민자들은 사막을 건너다 부상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애리조나의 911에 스페인어로 구조요청을 한다. 하지만 사막지역은 멀고, 전화기는 노후 되었으며, 이민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엔 어려움이 있어 이민자들을 찾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다. 또한 구조임무는 많은 시간과 수천달러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민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이미 일사병 혹은 탈수증상, 겨울에는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조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2012년, 미국 국경순찰대는 이민자 사망 대부분이 이 사막에서 발생했다고 했으며, 애리조나 주 전체에서 160구의 시체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소노라-애리조나 국경지역은 위험하지만, 이민자들은 국경순찰대의 감시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로를 이용하는 이민자들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경로는 코요테(Coyote)[47]에게 버려지거나, 단순히 길을 잃은 이민자들을 노리는 인신매매범도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불법이민자들은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48]

'애리조나대학교 미-멕 이민연구소(Instituto Binacional de Migración de

47)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밀입국 주선업자

48) http://www.bbc.co.uk/mundo/noticias/2013/11/131108_arizona_emergencia_inmigrantes_mexico_911_men.shtml(검색일자: 2013.12.03)

dCollection @ pufs

la Universidad de Arizona, UA)'와 '피마 법의학사무소(la Oficina del Forense del condado Pima)' 두 연구기관은 1990년~2012년까지 지난 22년 동안 멕시코-미국 애리조나 국경지역에서의 불법이민자 주요 사망원인을 연구했다. 알려진 사망자 2,238명 중에서 극단적인 기후조건에 의한 죽음이 46%, 자동차 사고가 9%, 나머지 36%는 사망원인을 판별할 수 없었다. 이 지역에서 불법이민자가 사망하는 비율은 100,000명 당 약 142.5명으로, 사망자의 성별은 남성이 80%를 차지한다. 사망자들의 출신국가는 멕시코 82.2%, 과테말라 7.1%, 엘살바도르, 2.3%, 온두라스 1.4%였다. 멕시코-미국 애리조나 국경지역은 이민자 체포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동안 불법이민자 사망률이 최고치에 도달했다.[49] 이렇듯 북부국경지역은 국경을 통과할 때 기후조건에 의한 위험이 높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률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민자들은 북부국경지역을 통과 할 때 미국 국경순찰대에 의해 피해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 이민자들의 인권문제가 불거지면서, 2013년 11월 멕시코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 국경순찰대의 무력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한 사례도 있었다.[50] 불법이민의 경우 이민 수치나 피해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북부국경지역의 경우 남부지역보다는 관련기관에서 이민자 사망률과 원인에 관한 통계를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경을 통과할 때 겪는 또 다른 위험으로는 국가의 국경통제로 인한 것이 있다. 멕시코 정부가 국경을 통제하면서 이민자들은 국경을 통과할 때 동행하고 안내해 줄 코요테 혹은 뽀예로가 필요해졌고,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더 위험한 경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이민자들의 겪는 위험은 더 증가하게 되었다. "이민자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부패한 공무원이 가담하기도 한다(Rodolfo Castillas R 2011:146)."

북부국경지역의 경우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멕시코 사람들과 중앙아메리카

49) http://www.informador.com.mx/internacional/2013/462848/6/muertes-de-inmigrantes-en-frontera-en-nivel-record.htm(기사검색:2013.12.03.)

50) http://www.oem.com.mx/elheraldodechiapas/notas/n3184274.htm(검색일자:2013.11.16)

dCollection @ pufs

사람들 때문에 더 위험하고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이 되었다. 코요테들은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한편 사기 건수도 증가했다(김현균·이은아 엮음 2013:189). 남부국경도 마찬가지로 국경의 감시와 경계가 강화될수록 국경을 넘게 도와줄 안내자가 필요해졌고, 경비를 지급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드는 경비가 오를수록, 적은 비용을 가져오는 불법이민자들에게 멕시코의 남부국경은 점점 불가능한 경계로 변하기도 한다.

국경지역에서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이민자들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킨다. 최근 이민자들은 남성뿐만 아니라 점점 여성과 어린아이들로 확대되고, 가족전체가 이민을 오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51] 이렇듯 이민자들의 유형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이들이 겪는 위험도 복잡하고 다양해진다고 볼 수 있다(Jéssica Natalia Nájera - Aguirre 2010:54).

Rodolfo Castillas R(2011:157)은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폭행, 강도, 신체적 고통, 성폭력, 납치, 고문, 사지절단, 협박, 노동착취, 인신매매, 성매매, 감금, 사망 등의 폭력에 여러 개에 노출되거나 적어도 한 개 이상은 겪는다고 했다.

과테말라인들은 까르멘-멕시코의 딸리스만(Talismán)사이의 국경을 건널 때 뽀예로에게 경비를 지급하고 도움을 받는다.[52] 강을 건넌 이민자들은 당국의 감시를 피해 도망쳐 곧바로 미국까지 가는 아리아가(Arriaga)의 화물열차에 오른다. 하지만 철도에 오른 이민자들은 살해당하거나 이동 중에 기차에서 떨어져 팔다리를 잃는 사고를 겪기도 한다. 또 범죄조직원들이 뽀예로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이민자들을 상대로 도둑질, 폭력, 강탈을 일삼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을 납치해 고국 또는 미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몸값을 요구한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이민자 구금센터와 피난처에는 이동

51) 다른 한편으로, 최근 뚝스뜰라 구금센터의 인터뷰를 보면 젊은 이민자 혼자서 이민을 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http://www.elperiodico.com.gt/es/20121216/domingo/222149/(기사검색:2013.11.03)

52) 이 국경지역을 건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민자들의 짐은 멕시코 강 유역에 먼저 두고, 큰 타이어나 판자를 묶어 만든 뗏목에 이민자들이 타고, 뽀예로들이 뗏목 뒤에서 헤엄쳐 좁고 빠른 강을 건넌다. 또는 뽀예로들이 굵은 밧줄을 건너편 나무나 건물에 고정시키고 그것을 이용해 강을 건넌다. 이민자들은 강을 건넌 후 무성한 잡초 속에 몸을 숨긴 후 열차가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dCollection @ pufs

경로에서 발생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다.[53]

아리아가는 미국으로 가는 화물열차가 지나가는 도시이며, 과테말라의 떼꾼 우만(Tecún Uman)에서 4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아리아가는 따빠출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무니시삐오이다. 남부국경을 통과한 이민자들은 계속해서 미국으로 가기위해 오아하까 주와 인접해있는 아리아가에서 기차를 기다린다. 그때 이민자들은 배고픔, 추위, 학대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일부는 사망하기도 한다.[54]

미국으로 가려는 통과이민자들은 멕시코의 철도를 이용해 북부국경까지 간다. 따라서 멕시코 철도망은 불법이민자들이 집결하는 장소인 동시에 납치되는 장소이기도하다. 범죄조직은 납치한 이민자들의 몸값을 요구하지만, 몸값을 받을 수 없을 때 2가지 행동을 취한다. 첫째는 다른 이민자를 납치하게 돕거나 도시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둘째는 '까르니세로(carniceros)'[55]를 불러 이민자를 처리하는 것이다. 납치된 이민자들이 탈출하거나 구조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Rodolfo Castillas R 2011:147).

국경지역에 머물고 있던 이민자들이 범죄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남부 치아빠스의 무니시삐오인 따빠출라는 과테말라와 42km거리에 있으며, 아즈떼까(Azteca)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다. 이 도시의 공동묘지에는 불법이민자들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의 무덤이 있다. 따빠출라에서는 '판테온 정원(Panteón Jardín)'이라는 공동묘지에 '법의학서비스(el Servicio Médico Forense: Semefo)'를 실시했다. 그 결과 따빠출라 시장은 시신 180구 중 120구가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2013년까지 50구는 가족에게 신원을 확인하였지만, 그 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대부분은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불법이민자들이라고 언급했다. 시신 중 70%는 남성이었으며 나머지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었다. 사망원인은 대부분 알코올중독, 사고, 칼·총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는 이민자들이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따빠출라 시장은 "미국에 가려는 외국인들은 문서를

53) http://www.elperiodico.com.gt/es/20121216/domingo/222149/(검색일자:2013.11.03)
54) http://www.oem.com.mx/lavozdelafrontera/notas/n3175675.htm(검색일자:2013.11.02)
55) 'Carnicero'는 스페인어로 정육점 주인을 뜻한다. 여기에서 까르니세로는 납치된 이민자들을 살해한 후 토막 내어 숨기는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dCollection @ pufs

갖추거나, 어떤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니 가족들이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경지역의 무니시삐오 공무원들 역시 이민자들이 따빠출라 뿐만이 아니라, 뚝스뜰라 치꼬(Tuxtla Chico), 까까오아딴(Cacahoatán) 시우닷 이달고(Ciudad Hidalgo)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리아가의 이민자 보호소 '자비의 집(Hogar de la Misericordia)' 또한 마을의 공동묘지에 아리아가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민자들 수십 명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이민자들의 시신에 예비번호를 배치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특별한 문서 또한 없다고 밝혔다. 멕시코 당국과 해당 국가의 영사관에서도 이들을 조사하거나 고국으로 송환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치아빠스에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영사관이 있는데, 외교당국은 치아빠스의 공동묘지에 이민자가 있을 수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당국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부국경지역의 이러한 현실에서, 2012년 11월에는 실종된 자식을 찾으러 38명의 중아아메리카 국가의 여성들이 아리아가에 오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는 치아빠스의 소꼬누스꼬와 해안에 있는 공동묘지를 조사하거나, 그 정보를 사망자들의 가족에게 알리고 있지 않다.[56] 기사에서는 남부국경지역이 이민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는 남부국경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북부국경지역에서도 사망하는 여성 이민자가 늘어나면서[57] 미국-멕시코 간 국경은 멕시코인들 뿐만 아니라 중앙아메리카인들의 '거대한 무덤'이 되고 있다.[58]

불법이민자들은 멕시코 당국에 체포되거나, 강탈, 살해당하곤 하는데 주로 치아빠스-오아하까-따바스꼬-베라끄루스-따마울리빠스-텍사스 경로에서 카르텔에 의해 폭력을 당하며, 문제는 부패한 공무원에 의해 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Raúl Benítez Manaut, 2011:192).

이민자들은 절도 및 갈취 등 정부·주도·무니시삐오 등 부패한 당국에 의해 피해를 겪는다. 많은 이민자들은 주로 도난, 사기, 납치, 사망 등 폭력을

56) http://www.oem.com.mx/lavozdelafrontera/notas/n3175675.htm(검색일자:2013.11.02)
57) 멕시코 북부국경지역의 경우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만 뿐만 아니라, 마낄라도라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범죄문제도 심각하다.
58) http://www.oem.com.mx/laprensa/notas/n2371601.htm(기사검색:2013.11.04)

dCollection @ pufs

경험한다. 또한 남부국경지역의 범죄조직의 존재는 이민자들에게 악몽과도 같다. 이민자들은 멕시코 남부국경지역에서 멕시코인들에게 폭력을 당하며, 심지어 '코요테(Coyote)'들도 양심의 가책 없이 이민자들을 속이거나 약속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않기도 한다. 특히 이민자들 중 여성과 아이들은 더 취약한 존재이며, 이민경로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 위협, 폭행, 실종, 사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Natalia Armijo Canto, 2011:46). 인신매매는 개인에게도 큰 불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2010년은 이민자 납치문제가 멕시코 국내·외 여론에서 큰 중요성을 얻은 시기였다.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la Comisió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CNDH)는 2008년 9월~2009년 2월까지 납치된 이민자수가 약 9,785명이며, 이들 중 95%가 조직범죄의 희생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가해자의 일부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멕시코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민자를 보호할 규정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불법이민자들의 합법화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관련된 특별법은 일부 주에서 공포되기도 하였다. 특히 납치와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베타그룹을 통해 계속해서 이민자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민자 납치는 계속 되었고, 이러한 계획 이후에도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언급했듯 2010년 8월 따마울리빠스에서 72명이, 12월 오아하까에서는 40~50여명이 사망했다. 이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다. 그러나 불법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연방, 주 관계자가 관여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이와 같은 대량학살 사건의 주된 책임은 범죄조직이지만 당국의 공모 또는 무관심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Natalia Armijo Canto, 2011:46-47).

이렇듯 이민자들은 국경통제로 인해 더 위험한 경로를 이용하게 되고 뽀예로 혹은 코요테에게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의 피해자들이며, 동시에 부패한 정부당국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국경의 위험성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밀입국을 저지하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나 시민의 귀환 이주마저 더욱 위험하게 만들기도 한다

Collection @ pufs

(김현균·이은아 엮음, 2013:190). 이와 같은 이유로 멕시코 국립이민청(INM)은 '2013 빠이사노 프로그램(El Programa Paisano)'[59]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11월1일~2014년 1월8일 동안 해마다 멕시코를 방문하는 동향인을 위해 실시하였는데, 국경지역이 위험해지면서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귀국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멕시코 이민자들이 북부국경을 넘으면서 절도, 강탈, 범죄 집단의 불법적인 행위들, 공무원의 학대와 모욕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었다.[60]

국경을 통과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이민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동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민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러한 정보를 전달한다.

최근 멕시코의 남부국경을 통과하려는 불법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Rodolfo Castillas R(2011)는 오늘날 멕시코 남부국경지역으로 오는 이민자들은 심지어 멕시코에 도착하기 전의 국가들(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특히 과테말라)에서부터 폭력에 노출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현재까지는 금품을 갈취당하는 수준이고 성폭력, 납치, 고문, 사지절단 등의 심각한 폭력은 없지만, 이제 이민자들은 멕시코로 가기위한 경로에서부터 위험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를 향한 이민흐름은 계속되고 있다(Rodolfo Castillas R 2011:147).

5.2.2 마약조직과 불법이민자와의 관계

멕시코로 들어오는 코카인은 주로 바다를 통해 유입된다. 첫째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치아빠스, 오아하까, 게레로를 통해서이며, 둘째는 벨리즈와 접하고 있는 카리브 해에 위치한 낀따나로를 통해서 유입된다. 멕시코로 유입된 코카인이 미국으로 가는 경로 중에서 치아빠스-오아하까-따바스꼬-베라끄루스-따마울리빠스-텍사스에서 가장 강렬하게 감지되었다. "불법이민자들이 카르텔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로인 치아빠

59) 빠이사노(paisano)는 스페인어로 동포, 동향인을 뜻한다.
60) http://www.oem.com.mx/lavozdelafrontera/notas/n3178673.htm(검색일자:2013.11.02)

dCollection @ pufs

스 -오아하까 -따바스꼬 -베라끄루스 -따마울리빠스 -텍사스(Raúl Benítez Manaut, 2011:192)"는 마약의 이동경로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멕시코 남부국경이 미국 보안의 취약점이라고 밝혔으며, 마약 유입의 원인으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부족한 경찰력을 꼽기도 하였다(Raúl Benítez Manaut 2011:181).

멕시코의 남부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이 대부분 지나가는 치아빠스와 따바스꼬의 도로는 주로 따빠출라, 빨렝께, 아리아가, 떼노시께(따바스꼬)를 지나간다. 특히 따바스꼬에 근접한 국경지역은 통제가 어렵고 위험이 높은 마약 대량거래 지역이기도 하다(Rodolfo Castillas R 2008:165)

"조직범죄가 멕시코 국가안보에 있어 우선과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년간 조직범죄는 심각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조직범죄가 국가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Raúl Benítez Manaut 2011:180에서 재인용)." 1990년대 국가안보 문제는 사람·무기·마약의 이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조직범죄는 국가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이민자는 횡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마약밀매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마약과 이민문제는 멕시코의 양 국경에서 발생한다(Raúl Benítez Manaut 2009:187).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범죄조직과 이민자와의 관계는 '마약 경로'로 표현되었다. 즉 코카인의 경로는 이민자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Raúl Benítez Manaut 2011:180).

마약밀매와 불법이민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마약밀매 조직은 불법이민자들에게 이민경로를 제공하고, 이민자들은 마약을 미국으로 운송한다(조성권 2009:46).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1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남부에서 북부 국경으로 가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강탈이 널리 행해지곤 했다.[61] 그런데 이민자를 납치하는 조직원들의 목적은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 운반 및 조직을 위해 일할 이주민을 모집하는 것이었다(김현균·이은아 엮음 2013:189).

통과이민의 경로와 코카인의 이동경로는 일치하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는

61) 증언에 기초하여 작성된 보고서에는, 2010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이민자 11,000명 이상이 납치되었다고 추정한다.

dCollection @ pufs

이민자와 마약의 통행을 막기 위해 국경에 군사를 배치하기도 하였다(Raúl Benítez Manaut, 2011:185).

따라서 마약과 불법이민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이민자들은 범죄조직에 납치되어 마약을 운반하기도 한다. 또한 오늘날 국가가 국경을 통제하려고 노력할수록 미국에 가려는 이민자들은 국경을 통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 중, 범죄조직의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Raúl Benítez Manaut(2011:191)이 지적한 것처럼 불법이민문제가 마약 관련 범죄를 추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5.3 이민자 인권문제

불법이민자 통제, 구금 및 추방, 국경 감시와 통제, 감시를 피하기 위한 위험한 경로 이용, 뽀예로 및 코요테에게 국경을 통과하기 위한 비용 지불,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범죄, 공무원들의 부패 등 이 모두 이민자의 인권문제로 연결된다. 최근에는 여성과 어린 이민자들도 남부국경을 넘어오는데 이들은 인신매매, 성매매 등의 범죄에 취약한 그룹이다.

2000년대 이후 멕시코 남부국경에서 다국적 조직범죄, 마약밀매, 인신매매 등 새로운 범죄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민자들이 희생당하기 시작하자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멕시코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멕시코에는 국립이민청(INM)에 의해 창설된 베타그룹이 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색, 구조, 응급처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베타그룹은 이민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이들의 신변안전, 물리적 재산과 같은 이민자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해준다. 베타그룹의 기능을 살펴보면, 이민자들에게 여행 중에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멕시코 영토 내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남용을 예방한다. 또한 부상 시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시에는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베타그룹은 길을 잘

dCollection @ pufs

못 든 이민자들을 수색하여 구조한다. 특히 이민자들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 베타그룹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이들은 이민자들의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이민경로를 인식하고, 각 베타그룹이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둘째, 이민자들이 생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 위험방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설치되는 해당지역에 따라 다른 정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극한의 온도와 위험한 동물에 대해 경고해 준다. 셋째, 이민자들이 이동하는 기차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 혹은 보호소로 이동시킨다. 넷째, 10m높이의 '베타 타워'에 10km까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를 설치해 둔다. 그리고 이 타워에 베타그룹이 구조하러 오기까지 이민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늘, 물, 외투 등이 구비되어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섯째, 이민자들이 다니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구조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62]

실제로 베타그룹은 2008년 188,202명, 2009년 198,631명, 2010년 총 223,80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 2011:8). 이를 통해 멕시코 정부가 불법이민자를 통제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국립이민청(INM)과 베타그룹을 통해 자국 내 외국인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민법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

오늘날 성인들뿐만 아니라 미성년 이민자들도 미국으로 가기위해 멕시코 남부국경을 넘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많은 아이들이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멕시코 남부국경도시에 남아 성매매, 가정부, 농장 일 등으로 착취를 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린이민자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매매 피해이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온두라스 출신으로, 시우닷 이달고, 까까오아 딴, 따빠출라, 딸리스만의 바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다. 또한 이들은 조직범죄에 연결되어 멕시코의 다른 지역에서 매춘을 당하기도 한다. 따빠출라에

62) 베타그룹의 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영, 수상 및 육상구조 훈련, 수색 및 구조, GPS 활용, 응급처치(인공호흡 등), 자기방어, 위기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다. 둘째, 이민자 인권방어를 위해 법적조치 실현, 여성 및 아동 청소년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신원증명), 이민자와 인권에 관한 훈련을 받는다.
http://www.inm.gob.mx/index.php/page/Grupo_Beta

dCollection @ pufs

서는 중앙아메리카 출신의 미성년 이민자들을 성매매 한 사업장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일시적일 뿐 여전히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다. 인권단체 '또도 뽀르 에요스(Todo por Ellos, 스페인어로 '그들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뜻)'[63]의 라몬 베르두고(Ramón Verdugo) 소장은 따빠출라의 거리, 바, 레스토랑 등에서 과자와 담배를 팔고 있는 중앙아메리카 출신 어린 이민자들이 경찰과 공무원들에게도 갈취를 당한다고 밝혔다. '또도 뽀르 에요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공개적으로 비난했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라몬 베르두고 소장은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멕시코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무관심하다고도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남부국경지역은 어린이민자들의 '지옥'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64]

2013년 10월, 치아빠스의 따빠출라 '음식은행(El Banco de Alimentos de Tapachula)'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200여명의 통과이민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료품과 피난처를 제공했다. 이는 유엔 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아, 이민자들에게 15뻬소(peso, 멕시코 화폐단위)라는 낮은 비용으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65] 그러나 남부국경지역에 위치한 이민자 인권단체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폐쇄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뜨락스깔라(Tlaxcala)에 위치한 이민자의 집 '성가족(La Sagrada Familia)'은 이민자들에게 음식, 의류, 대피소 등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2013년 이곳은 정부의 낮은 지원과 기부금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66]

이민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은 멕시코 국경과 접해있는 미국 국경지역에서도 하고 있다. 띠후아나(Tijuana)-샌디에고(San diego)는 멕시코와 미국 양국에서 유일하게 해안가에 국경이 분리되어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 미국에 가려는 이민자들은 이 국경을 넘을 때 바다·해변·강·수로 등에서 사망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3년간 8월 첫 번째 일요일마다 국제캠페인을 개최해

63) 치아빠스 뚝스뜰라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과 동반 이주한 아동을 위한 임시쉼터이다. 어린 이민자들의 성매매 및 노동착취를 예방하고, 집이 없는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http://todoporellos.org.mx/sitio/

64) http://www.bbc.co.uk/mundo/noticias/2013/06/130610_infierno_ninos_migrantes_mexico_frontera_sur_chiapas_an.shtml (검색일자:2013.06.20)

65) http://www.oem.com.mx/lavozdelafrontera/notas/n3175040.htm(기사검색:2013.11.04)

66) http://www.oem.com.mx/laprensa/notas/n3075857.htm(기사검색:2013.11.04)

dCollection @ pufs

왔다. 캠페인에서는 사망한 불법이민자들의 사진을 미국 쪽 해안가에 배치하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67]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이민자들이 겪는 인권문제는 미국의 시민단체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납치된 이민자들이 탈출하거나 구조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Rodolfo Castillas R 2011:147)"고 할지라도 이민자 구출사례는 종종 있어왔다. 예를 들어, 2013년 멕시코 경찰은 미국 매캘런(McAllen)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우닷 레이노사(Ciudad Reynosa)에서 납치되어 3개월 이상을 갇혀있었던 이민자들 73명을 구출하였다. 구조된 73명 중 37명은 멕시코인, 19명은 온두라스인, 14명은 과테말라인, 3명은 엘살바도르인 이었으며, 여기에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68]

멕시코 정부는 불법이민자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민경로에서 겪는 위험을 인지하고, 베타그룹을 통해 이민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겪는 위험에 비해 이러한 노력과 결과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멕시코에 있는 불법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대부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의 지원인 미비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이민자 인권피해 사례에 대해 알려도 멕시코 사회에서는 무관심한 편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국경지역에 있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북부국경지역에서 피해를 겪는 멕시코이민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단체에서는 멕시코-미국 국경지역을 넘다 사망하는 불법이민자들의 피해사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

67) http://www.informador.com.mx/internacional/2013/476390/6/colocan-cruces-en-frontera-como-apoyo-a-inmigrantes.htm(기사검색:2013.12.03)

68)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3/10/130930_ultnot_mexico_rescate_centroamericanos_jgc.shtml(기사검색:2013.10.30)

dCollection @ pufs

5.4 국경도시의 변화

역사적으로 과테말라인들은 멕시코로 순환이민을 왔으며, 최근에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에서도 멕시코로 이민을 오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1980년대부터 나타났고, Rodolfo Castillas R.(2011:146)이 지적했듯 이 현상은 멕시코 남부국경의 일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회구조를 형성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미성년 이민자들도 미국으로 가기위해 멕시코 남부국경을 넘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많은 아이들이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멕시코 남부국경도시에 남아 성매매, 가정부, 농장에서 착취를 당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중앙아메리카인들 10만 여명이 멕시코로 이주하는데, 이민자들 중 아이들은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 남부국경지역에 있는 미등록 어린이민자들의 정확한 수치는 조사된 바가 없으나, 멕시코 당국은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국립이민청(INM)에 따르면 2010년 멕시코에서 추방한 18세미만 이민자들은 4,815명이며, 2012년에는 6,894명으로 증가했다. 남부국경지역에 있는 '마띠아스 데 꼬르도바 인권센터(el Centro de Derechos Humanos Fray Matías de Córdova)'[69] 역시 중앙아메리카 출신의 어린이민자들이 미국에 가기위해 혼자 혹은 동행과 멕시코를 통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으로 갈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동안 치아빠스 따빠출라의 거리, 야외 레스토랑, 바 등에서 과자를 팔며 생존한다. 또한 가족과 함께 온 어린이민자들은 가족들이 농장에서 일할 동안 따빠출라의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하기도 한다.[70]

미국으로 가려는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국경도시에 머물며 돈을 버는 현상은 북부지역에서도 나타난다. 2010년부터 따마울리빠스에서는 미국에서

69) 1994년 남부 국경지역에 있는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이다. http://www.cdhfraymatias.org/

70) http://www.bbc.co.uk/mundo/noticias/2013/06/130610_infierno_ninos_migrantes_mexico_frontera_sur_chiapas_an.shtml(검색일자:2013.06.20)

dCollection @ pufs

추방당한 이민자들, 미국으로 가려고 돈을 버는 이민자들, 납치되거나 혹은 금품을 갈취당해 빈손으로 들어온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목격할 수 있다. 이들 중 소수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대부분은 계속해서 미국으로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따마울리빠스의 레몬류 재배지역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은다(Karla Lorena Andrade Rubio, Simón Pedro Izcara Palacios 2013:6).

앞서 국경의 위험증가에서 언급했듯, 오늘날 멕시코의 국경지역이 위험해지면서, 국경도시에서는 이민자들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부국경도시의 공동묘지에는 불법이민자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의 무덤이 증가하면서 신원확인, 처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처럼 이민자들로 인해 국경도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경지역에서 이민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사망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무관심하다고 해도 국경사회에서 계속해서 간과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경도시는 이민자들이 통과하는 경로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 일시적으로 정착하여 돈을 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경지역의 중요한 변화이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은 국경도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공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오늘날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은 국경지역의 일상생활에 통합되고, 국경지역 환경의 일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통과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는 이제 국경도시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민자들이 지나가는 멕시코 중앙지역의 다른 도시들에도 이들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2013년 9월, 산루이스뽀또시(San Luis Potosí)에서는 20여명의 이민자들이 금품을 갈취당하고 칼로 상해를 입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국가안전과 공공지자체 및 연방경찰의 문제가 노출되는 사건으로 여겨졌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산루이스뽀또시에 있는 이민자보호소 '이민자의 집(Casa del migrantes)' 근처에서도 일어났다. 멕시코 군대가 관련 범죄조직을 해체했으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71]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이 새롭게 이동하는 경로 중 하나는 과달라하라

71) http://www.oem.com.mx/elsoldesanluis/notas/n3139978.htm(검색일자:2013.11.04)

dCollection @ pufs

(Guadalajara)이다. 과달라하라에서는 최근 중앙아메리카 출신의 불법이민자들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2013년 7월, 시민단체는 몇 달 전부터 거리에서 자고 있는 과테말라인, 온두라스인들을 발견했다. 과달라하라의 '극빈층을 위한 종합관리센터(Centro de Atención y Desarrollo Integral para Personas en Situación de Indigencia, CADIPSI)'에는 투숙객 중 20%가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이다. 이것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달라하라에서 나타나지 않던 수치이다. 이들은 기차를 타고 멕시코 중앙지역을 통과하지만, 수 천 명은 북부국경을 넘는 대신에 멕시코에 머물기로 결정한다. 불법이민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민자들은 북부국경 통과의 위험성을 걱정하며 과달라하라가 살기 좋은 도시라 계속해서 멕시코에 남고 싶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이민자들은 도시에 머물며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방을 렌트하기도 한다.[72]

미국으로 가는 통과이민자들 중 많은 이들이 기차를 타고 멕시코의 서쪽을 통해서 가는 경로를 이용한다. 문제는 이 철도가 50도의 사막지역을 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멕시코-미국 국경을 넘는 대신에 멕시코에 정착하기 위해 할리스꼬(Jalisco), 나야릿(Nayarit), 시날로아(Sinaloa), 바하 깔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에 머물며 일자리를 구하기도 한다.[73]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멕시코의 남부국경을 통해 들어온 이민자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로에서 미국으로 가려던 목적을 포기하고, 멕시코에 정착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통과이민자들이 멕시코에 머물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그 중 하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많은 인구가 기회가 적은데,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몇몇 직업에서 멕시코인과 경쟁하거나 다른 경우에는 공동체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74] 이러한 외국인 혐오증은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아리아가에서

72) http://www.bbc.co.uk/mundo/noticias/2013/07/130714_mexico_migracion_centroamerica_reforma_migratoria_honduras_an.shtml(검색일자:2013.07.15)

73) http://www.bbc.co.uk/mundo/noticias/2013/07/130714_mexico_migracion_centroamerica_reforma_migratoria_honduras_an.shtml(검색일자:2013.07.15)

74)

dCollection @ pufs

북동쪽으로 가는 320km 길이의 빨렝께(Palenque)의 철도는 남부국경을 건넌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곳이다. 멕시코 당국은 매일 500명까지의 이민자들이 빨렝께에서 미국으로 떠난다고 보고 있다. 이민자들은 빨렝께의 빈민지역에 많이 머무는데, 이들은 마약을 소지하고 들어오거나 그 지역의 주민들을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빨렝께의 주민들은 이민자들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75]

과거부터 멕시코 남부국경지역의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과테말라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국경을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같은 문화권에 속해있어 멕시코 이민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현재에도 여전히 과테말라 출신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기사, 이민자 센터 등의 자료를 보면 멕시코 내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치아빠스의 이민자센터인 '이민자의 집(Casa del Migrantes)'에는 온두라스 출신 수가 57%가 증가했고, 그 중 82%가 미성년자임을 언급하고 있다.[76] 특히 농장에서 일하는 부모와 함께 온 온두라스출신의 어린 이민자들도 중요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77] 남부국경지역에는 어린이 이민자 800여명이 있다는 기사 등을 접할 수 있다.[78] 특히 멕시코 중앙에 위치한 산루이스뽀또시에 있는 이민자보호소 '이민자의 집(Casa del Migrante)'에 있는 이민자들 중 80%가 온두라스인들이며, 나머지가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79]

[표 5]는 멕시코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추방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 목적지 설문조사이다.

---

http://www.bbc.co.uk/mundo/noticias/2013/07/130714_mexico_migracion_centroamerica_reforma_migratoria_honduras_an.shtml(검색일자:2013.07.15)

75) http://www.elperiodico.com.gt/es/20121216/domingo/222149/(검색일자:2013.11.03)

76) http://www.elperiodico.com.gt/es/20121216/domingo/222149/(검색일자:2013.11.03)

77) http://www.bbc.co.uk/mundo/noticias/2013/06/130610_infierno_ninos_migrantes_mexico_frontera_sur_chiapas_an.shtml(검색일자:2013.06.20)

78) http://www.oem.com.mx/laprensa/notas/n3077506.htm(검색일자:2013.11.16)

79) http://www.oem.com.mx/elsoldesanluis/notas/n3139978.htm(검색일자:2013.11.04)

dCollection @ pufs

[표 5] 국가별 불법이민자 목적지 설문조사

	목적지구분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2009		**28,188**	**23,186**	**9,567**
	미국	13,436	22,731	8,127
	멕시코	14,752	455	1,441
2010		**27,911**	**23,041**	**9,744**
	미국	10,153	22,766	8,442
	멕시코	17,758	275	1,302
2011		**30,011**	**17,469**	**8,310**
	미국	9,414	16,869	7,026
	멕시코	20,598	599	1,284
2012		**34,525**	**26,677**	**11,863**
	미국	12,965	25,314	10,459
	멕시코	21,560	1,363	1,404

출처: La Encuesta sobre Migración en la Frontera Norte y Sur de México(EMIF): http://www.colef.net/emif/index.php

체포된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민자들의 목적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통계로 볼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멕시코 남부국경을 통한 같은 유입이라도 최종 목적지는 국가들끼리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테말라인들의 경우 2009년부터 최종목적지로 멕시코가 조금 더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보다는 멕시코를 더 선호하는 추세이다. 반대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인들은 대부분이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다. 멕시코 내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 중 과테말라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국경도시에는 미국으로 가기위해 돈을 버는 온두라스 출신 어린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미국으로 가기위해 통과하는 중앙지역 도시인 산 루이스 뽀또시의 이민자보호소에 온두라스인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나타나는 변화로 여겨진다.

멕시코 남부국경은 공식적인 통과지점 외에도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dCollection @ pufs

않는 많은 통과지점들이 있다. 미국으로 가려는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이 남부국경을 넘고 국경도시에 머물면서, 이민자들의 존재는 이 지역의 일상이 되고 있다. 국경지역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국경도시에는 이민자들의 무덤이 생기고, 이민자 보호소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들이 머문다. 또한 미국으로 가려는 여정에 문제가 생기면 국경도시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돈을 벌기도 한다. 통과이민자들이 이동하면서 멕시코 중앙지역에 있는 도시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최근에는 위험한 북부국경까지 가는 대신에 멕시코에 정착하기로 결정하는 이민자들도 있다. 또한 과거부터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과테말라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가려는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통과이민자들로 인해 국경도시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다른 도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dCollection @ pufs

Ⅵ. 결 론

멕시코 국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민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민현상이 일어나는 멕시코의 주요 국경지역과 이민경로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이민, 특히 미국으로 향하는 통과이민이 멕시코 국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고찰 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민현상으로 인한 멕시코 국경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멕시코가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부국경은 인접국인 미국의 주도 아래 관리되어 왔고, 멕시코는 미국의 국경통제 요구에 협력해 왔다. 반면에 멕시코의 남부국경은 북부국경에 비해 비교적 '열린 국경'이었다. 멕시코는 1980년대~1990년대 초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내전으로 인한 피난민들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멕시코는 국립이민청(INM)을 창설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부국경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 후 미국은 멕시코의 북부국경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남부국경을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멕시코는 2001년 남부계획(Plan Sur)을 통해 주요 이민경로를 폐쇄시켜, 남부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는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본국으로 추방시켰다. 이 계획에는 불법이민자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국경지역의 범죄율을 줄이고, 부패한 공무원의 남용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다. 따라서 이시기부터 멕시코는 불법이민자를 제지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국경을 만들기 위해 국경을 관리하고 통제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남부계획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이민자 추방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둘째, 멕시코의 국경은 계속해서 위험해지고 있다. 먼저 이민자들은 국경을 통과하면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멕시코가 국경을 통제하면서 이민자들을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북부국경지역은 띠후아나, 시우닷 후아레스 등이었지만 이제는 소노라-애리조나로 바뀌었다. 소노라는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경로지만,

dCollection @ pufs

사람이 살기 힘든 기후조건으로 인해 이민자 사망률이 높다. 실제로 미국의 국경순찰대는 2012년 불법이민자 사망자 대부분이 소노라 사막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남부국경지역의 경우 2011년 추방된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 통과수단을 조사를 한 결과, 튜브를 이용하거나 헤엄쳐 강을 건너는 방법 41%, 걸어서 국경을 넘는 방법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것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들은 남부 치아빠스의 수치아떼 강을 건너면서 보트가 침몰하거나 주민들에게 해를 입기도 한다. 그러나 국경이 위험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다. 이민자들은 노동착취, 강도, 협박, 폭행, 고문, 사지절단, 성폭력, 감금, 납치, 인신매매, 성매매, 사망 등의 피해를 입는다. 또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학살이 2010년 따마울리빠스, 오아하까에서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민자들은 부패한 공무원, 국경순찰대에 의해 폭력을 겪기도 한다. 특히 이민자 납치문제는 심각한데, 2011년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5개월 사이에 11,000명이 납치되었다고 추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이민자와 마약밀매는 상호연관이 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약밀매 조직은 불법이민자들에게 이민경로를 제공하고 이민자들을 마약을 미국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마약조직은 마약을 운반시키기 위해 이민자들을 납치하기도 한다. 이는 불법이민자들로 인해 마약관련 범죄가 추가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멕시코 국경지역이 위험해지면서 멕시코는 귀국길에 오른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부국경지역에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남부국경지역에 군대와 경찰을 파견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미국뿐만 아니라 남부국경을 통제하기 위해 과테말라, 벨리즈와도 협력해왔다. 그러나 국경지역의 위험과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멕시코는 '안전한 남부국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과테말라, 벨리즈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와는 높은 수준의 안보(GANSEG)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국경지역의 공공안전, 이민자 인권보장, 조직화된 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 국경감시단 파견 등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셋째, 멕시코 국경지역에는 이민자 인권문제가 발생했다. 멕시코 정부가 국경과 불법이민자를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경지역의 범죄와 위험이 증

dCollection @ pufs

가하는 것은 이민자의 인권문제와 연결된다. 국경지역에서는 관련 단체들이 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민자 대피소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이동하는 이민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지원이 부족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단체에서 이민자들의 인권 피해사례를 멕시코 사회에 알리기도 하지만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멕시코 정부가 이민자를 제지하고 체포하여 추방하고는 있지만, 국립이민청(INM)에 의해 창설된 베타그룹은 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베타그룹은 국경지역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수색, 구조, 응급처치 등을 한다. 베타그룹은 띠후아나를 시작으로 북부국경지역에 먼저 설립되었고, 이후에 남부국경지역, 이민자들의 주요경로인 오아하까와 베라끄루스 등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멕시코 국경에서의 이민자 인권문제는 이민자들이 계속 위험해지는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법이민자의 인권문제는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따라서 이민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인권보장 결과는 이민자들이 겪는 폭력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다섯 째, 이동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멕시코의 국경도시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멕시코의 남부국경지역에는 많은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있다. 이들은 남부국경지역의 일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민자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테말라인들의 경우 최종 목적지가 미국보다는 멕시코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다른 국가의 이민자들은 대부분 멕시코보다는 미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부국경지역의 치아빠스에는 엘살바도르 출신 어린이민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미국으로 가기위한 경비를 벌기위해 국경도시에서 일하거나, 여자아이들의 경우 성매매 피해를 겪기도 한다. 또한 남부국경도시의 공동묘지에는 범죄에 노출되어 사망한 이민자들의 무덤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국경지역에서 이민자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이민자들이 직업에서 멕시코인들과 경쟁하거나 공동체의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빨렝께의 경우 이민자들이 마약을 소지하고 들어오거나, 빈민지역에 머물며 주민을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주민들은 이민자들에

dCollection @ pufs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북부국경지역의 따마울리빠스 역시 통과이민자들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가기위해 농장에서 돈을 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경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요인인 이민자들은 이제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산루이스뽀또시, 과달라하라에서는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변화를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루이스뽀또시, 오아하까에서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학살이 일어나거나, 과달라하라·할리스꼬·나야릿·시날로아 등에는 미국으로 가려던 이민자들이 위험한 여정을 포기하고 정착하기로 결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는 이민자들로 인해 국경도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륙도시에도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로 멕시코 국경은 멕시코만의 특성이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멕시코 국경의 멕시코적인 성격은 '이민 경로'가 된다는 것이다. 미국으로 가려는 불법이민자들은 멕시코의 한 국경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통과이민자들은 멕시코의 도로와 철도를 이용해 다양한 경로로 남부국경에서 북부국경까지 이동한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 역외이민의 가장 큰 흐름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과, 멕시코가 미국과 중앙아메리카를 연결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에서 나온다. 이러한 '통과이민 경로'는 멕시코 국경만의 특성이다. 그러나 이민경로는 국가의 통제, 범죄문제, 자연재해 등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기도 한다. 또한 이민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민경로를 개발하고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전파한다. 따라서 이민 경로가 변화하게 되면 곧 멕시코 국경의 성격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멕시코 국경의 또 다른 멕시코적인 성격으로는 북부국경이 멕시코인들 뿐만 아니라 중앙아메리카인들에게도 '미국으로 가기위한 한 국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부국경 역시 미국으로 가려는 통과이민자들에게 미국으로 가기위한 '첫 번째 국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멕시코의 국경은 통과하는 국경만은 아니다. 통과이민자들은 여전히 미국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만 경비가 부족하면 국경도시에 남아 돈을 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자들 중 일부는 멕시코의 국경이 계속해서 위험해지자 다시 북부국경을 넘는 대신에 국경도시 혹은 이동하는 경로 중에 있는 도시에 남아 정착하기도 한다. 따

dCollection @ pufs

라서 멕시코 국경의 성격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통과국경인 동시에, 멕시코에 살기위해 '정착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멕시코 국경의 특수성'을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이 멕시코 국경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멕시코의 국경은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어느 국가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멕시코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멕시코의 국경은 미국으로 가는 통과이민경로가 되고, 멕시코인들 뿐만 아니라 중앙아메리카인들에게도 미국으로 가기위한 국경이 되었으며, 국경통과가 어려워지고 위험해지면서 미국으로 가려는 경로에서 정착하기 위한 지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Collection @ pufs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석영(2005), 「중남미 정치와 국제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권기수(2005), 멕시코 마낄라도라(Maquiladora) 산업: NAFTA의 최대 수혜자, 국제지역정보, 143권, pp.92-25.

김남국(2005), "경계와 시민: 국민국가의 국경통제는 정당한가?",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2호, 통권 49호, pp.153-180.

김은중(2010), 마약전쟁과 쇼크 독트린, 트랜스라틴, 12호, pp.11-18

김현균·이은아 엮음(2013), 「라티노 라티나 혼성문화의 빛과 그림자」, 한울아카데미.

김홍철(1997), 「국경론」, 민음사.

민병원(2006),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네트워크 국가의 등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12권 3호, pp.5-36.

박윤주·임상래·이상현·조영태,(2011),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정원(2009), "멕시코·미국 경계문화, 왜 경계인가? -멕시코·미국 국경연구의 성과와 과제", 「트랜스라틴」, 8호, pp.24-31.

에릭 허쉬버그·프레드 로젠 외(김종돈 강혜정 엮음)(2008),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모티브북.

우덕룡·김태중·김기현·송영복(2003), 「라틴아메리카 마야, 잉카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문화」, 송산출판사.

이성훈(2008), "라틴아메리카 국민국가와 정체성 형성과정 연구 시론", 「Revista Iberoamericana」, 19-1, pp.103-123.

이전(1994), 「라틴아메리카 지리」, 민음사.

이전·백종국(1997),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경제구조 변화에 관한 고찰 -NAFTA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32권, 2호,

dCollection @ pufs

pp.155-174.
임상래(2003), “라틴아메리카 국경문제에 관한 소고”, 「이베로아메리카」, 제5호, pp.177-199.
임상래(2013), 「라티노와 아메리카」, 이담Books.
전경수 외(2010),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환경 문제: 현황과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성권(2009), “미국-멕시코 관계의 새로운 모색 : 마약밀매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pp.41-68.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퍼트리샤 오언스(2005),「세계 정치론」, 을유문화사.
주미영(2010), “이민정책을 둘러싼 미국-멕시코 간 갈등의 변화”, 「중남미연구」, 제 28권, 2호, pp.415-444.
주종택(2011), “미국의 이주정책과 멕시코의 국제노동이주의 형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4, No.2, pp..
최금좌(2005), 세계화시대 자유무역과 이민 : MERCOSUR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8권, 제1호, pp.181-222.

-외국어 자료-

Ana Silivia Alfinzo Melgar(2008), La dinámica de los flujos migratorios mixtos en la Frontera Sur de México: Una breve interpretaciónn, El Colegio de la Frontera Sur, Red de Estudios Migratorios en la Frontera Sur de México, pp.1-6.
César Sepulveda(1958), Historia y problemas de los limites de México: ii. La frontera sur, Historia Mexicana, Vol.8, No.2, pp.145-174.
Cynthia Marisol Vargas Orozco, Karla Villarreral Sotero(2007), Violaciones a los derechos de los migrantes en su travesía por la frontera norte de Tamaulipas, CienciaUat, pp.41-44.
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2003), Quinto informe de

dCollection @ pufs

progreso de la relatoría sobre trabajadores migratorios y miembros de sus familias, Informe annual de la 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2003, pp.1-81.

Edith F. Kauffer Michel(2010), Hidropolítica del Candelaria: del análisis de la cuenca al estudio de las interacciones entre el río y la sociedad ribereña, Relacione, Relaciones. Estudios de historia y sociedad, vol.31(124), pp.187-226.

Eliseo Díaz González(2013), Reforma migratoria y evolución esperada de las remesas en México, Migraciones Inernacionales, Vo.7, Núm.2, pp.245-254.

EMIF SUR(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Centro de Estudios Migratorios, 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El Colegio de la Frontera Norte)(2006), Encuesta sobre migración en la frontera Guatemala-México 2004, EMIF SUR, pp.13-188.

EMIF SUR(2013), Encuesta sobre migración en la frontera sur de México 2011, Serie Histórica, 2006-2011, EMIF SUR, pp.1-339.

EMIF NORTE(Secretaría de Gobernación,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El Colegio de la Frontera Norte)(2012), Encuesta sobre migración en la frontera norte de México 2010, Serie analizada 2003 a 2010, EMIF NORTE, pp.1-336.

EMIF NORTE(Secretaría de Gobernación, Consejo Nacional de Población,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Unidad de Política Migratoria-Centro de Estudios Migratorios,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El Colegio de la Frontera Norte)(2013), Encuesta sobre migración en la frontera norte de México 2011, Serie analizada 2004 a 2011, EMIF NORTE, pp.1-397.

Guillermo Paredes Orozco(2009), Migración de guatemaltecos a México y

dCollection @ pufs

Estados Unidos a partir de la Encuesta sobre migración en la frontera Guatemala-México 2004: Un análisis de estrategias migratorias, Migraciones internacionales, Vol. 5, Núm. 1, pp.93-124.

Harlan Koff(2008), La política fronteriza comparada y las estructuras del poder, Estudios Políticos, Núm.32, pp.119-134.

INEGI, Referencias geográficas y extensión territorial de México, Dirección de Capacitación, pp.1-17. http://www3.inegi.org.mx/sistemas/spc/Bibliografia.aspx

Jéssica Natalia Nájera - Aguirre(2010), Conociendo la Encuesta Migración en la Frontera Guatemala-México: alcances y limitaciones, Papeles de población, Papeles de población, Vol.16, No.63, pp.49-83.

José María Ramos García(2012), México-Estados Unidos: problemas y retos en seguridad fronteriza en la administración Obama, Región y Sociedad, Vol.24, No.55, pp.5-40.

José Pablo Liedo Fernández(2005), Frontera sur de México, El colegio de la Frontera Sur México, pp.28-33.

Jorge Luis Hidalgo Castellanos(2007), La frontera México-Belice: desafíos y oportunidades, Revista Mexicana de Política Exterior No.81, pp.157-189.

Karla Lorena Andrade Rubio, Simón Pedro Izcara Palacios(2013), Valoranción de las fuerzas armadas por los transmigrantes centroamericanos asentados en Tamaulipas(México), XI Congreso Nacional de Sociología. Celebrado en la Facultad de Ciencias Políticas y Sociología de la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pp.1-19. 학술대회 발표문(2013.07.10～12)

Ma. Eugenia Ramírez Parra(2003), Migración de menores de edad en el soconusco, chiapas, Primer Coloquio Internacional: Migración y Desarrollo: transnacionalismo y nuevas perspectivas de

dCollection @ pufs

integración. Zacatecas, México 23 - 24 de octubre, pp.1-10.

Mauel Mollá Ruiz-Gómez(2011), La región fronteriza México-Estados Unidos, un lugar de unión y desencuentros, Investigacions Geográficas, No.55, p.169-180.

María Eugencia Anguiano Téllez(2009), Movilidad laboral tranafronteriza: el programa de trabajadores temporales en la frontera sur de México, Simposio internacional de inmigración. pp.1-11. 국제심포지엄 발표문(2009.05.27)

María de J. Santiago-Cruz(2010), Migración y Transmigración en la frontera sur de México: Reflexiones sobre su relación e impacto en el desarrollo local, Ponencia preparada para la XII Reunión de Economía Mundial, 국제회의 발표자료(2010.05.26~28)

Miriam Alfie Cohen(2002), El medio ambiente en la fronteriza México-Estados Unidos: ¿Las ONG ambientalistas, nuevos actores sociales?, Estudios Fronterizos, Vol.3, Núm.5, pp.43-75.

Moisés Esteban Guitar, Ignasi Vila Mediburu, José Bastiani Gómez(2010), El carácter fronterizo de las identidades contemporáneas. El caso de chiapa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o.44

Natalia Armijo Canto(2011), Frontera sur de México: los retos múltiples de la diversidad, in *Migración y seguridad: Nuevo desafío en México*, CASED Colectivo de Análisis de la Seguridad con Democracia, pp.35-51.

Olivia Ruiz Marrujo, Coautoria de fa Red de fas Casas del Migrante-ScaLabrini(2001), Los riesgos de cruzar, La migración centroamericana en la frontera México-Guatemala, Frontera Norte, Vol.13, Issue.25, pp.7-42.

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2011), Grupos Beta, OIM(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 pp.1-14.

Pablo Salazar Mendiguchía(2004), Migración en la frontera sur, una visión desde Chiapas, Revista mexicana de política exterior,

dCollection @ pufs

pp.107-116.

Raúl Benítez Manaut(2009), La crisis de seguridad en México, Nueva Sociedad, No.220, pp.173-189.

Raúl Benítez Manaut(2011), México, Centroamérica y Estados Unidos: migración y seguridad, *Migración y Seguridad: nuevo desafío en México*, *México*, CASED Colectivo de Análisis de la Seguridad con Democracia, pp.179-192.

Ricard Zapata-Barrero(2012), Teoría política de la frontera y la movilidad humana, Revista Española de Ciencia Política, Núm.29, pp.39-66

Rodolfo Castillas R.(2008), Las rutas de los centroamericanos por México, un ejercicio de caracterización, actores principales y complejidades, Migración y desarrollo, núm.10, pp.157-174.

Rodolfo Castillas R.(2011), Los migrantes indocumentados: su vulnerabilidad y la nuestra, *Migración y Seguridad: nuevo desafío en México*, CASED Colectivo de Análisis de la Seguridad con Democracia, pp.145-164.

Salvador Hernández(2004), La frontera sur de México, Eco fronteras Núm.23, Revista ECOSUR, pp.3-8.

Soledad Álvarez Velasco(2009), Transitando en la clandestinidad: análisis de la migración indocumentada en tránsito por la frontera sur mexicana, ANDINAMIGRANTE 4, Sistema de Información de Migraciones Andinas, Flacso Sede Ecuador.

Simón Pedro Izcara-Palacios(2012), Violencia contra inmigrantes en Tamaulipas, European Review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93, pp.3-24.

Telésforo Ramírez García, Manuel Ángel Castillo(2012), El estado de la migración, México ante los recientes desafíos de la migración internacional, *Consejo nacional de población*, pp.1-345.

dCollection @ pufs

-기사 검색-

http://www.bbc.co.uk/mundo/noticias/2013/06/130610_infierno_ninos_migrantes_mexico_frontera_sur_chiapas_an.shtml(검색일자:2013.06.20)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3/06/130627_ultnot_eeuu_reforma_migratoria_votacion_senado_jg.shtml(검색일자:2013.06.28)
http://www.bbc.co.uk/mundo/noticias/2013/07/130714_mexico_migracion_centroamerica_reforma_migratoria_honduras_an.shtml(검색일자:2013.07.15.)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3/07/130723_ultnot_mexico_eeuu_frontera_seguridad_cch.shtml(검색일자:2013.07.28)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3/10/130930_ultnot_mexico_rescate_centroamericanos_jgc.shtml(검색일자:2013.10.30)
http://www.oem.com.mx/lavozdelafrontera/notas/n3175675.htm(검색일자:2013.11.02)
http://www.oem.com.mx/lavozdelafrontera/notas/n3178673.htm(검색일자:2013.11.02)
http://www.bbc.co.uk/spanish/especiales/humanrights/pesadilla.shtml(검색일자:2013.11.03.)
http://www.elperiodico.com.gt/es/20121216/domingo/222149/(검색일자:2013.11.03)
http://www.oem.com.mx/lavozdelafrontera/notas/n3175040.htm(검색일자:2013.11.04)
http://www.oem.com.mx/laprensa/notas/n3075857.htm(검색일자:2013.11.04)
http://www.oem.com.mx/laprensa/notas/n2371601.htm(기사검색:2013.11.04)
http://www.oem.com.mx/elsoldesanluis/notas/n3139978.htm(검색일자:2013.11.04)
http://www.oem.com.mx/elmexicano/notas/n3083695.htm(검색일자:2013.11.16.)
http://www.oem.com.mx/laprensa/notas/n3077506.htm(검색일자:2013.11.16)

dCollection @ pufs

http://www.oem.com.mx/elheraldodechiapas/notas/n3184198.htm(검색일자:2013.11.16.)

http://www.oem.com.mx/laprensa/notas/n3086744.htm(검색일자:2013.11.16)

http://www.oem.com.mx/elheraldodechiapas/notas/n3184274.htm(검색일자:2013.11.16)

http://www.informador.com.mx/mexico/2010/256172/6/frontera-sur-de-mexico-puerta-abierta-al-trafico-de-armas-filtra-wikileaks.htm(검색일자:2013.12.03.)

http://www.bbc.co.uk/mundo/noticias/2013/11/131108_arizona_emergencia_inmigrantes_mexico_911_men.shtml(검색일자: 2013.12.03.)

http://www.informador.com.mx/internacional/2013/462848/6/muertes-de-inmigrantes-en-frontera-en-nivel-record.htm(검색일자:2013.12.03.)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3/10/131030_ultnot_california_tunel_droga_tijuana_san_diego_ig.shtml(검색일자:2013.12.03.)

http://www.informador.com.mx/internacional/2013/476390/6/colocan-cruces-en-frontera-como-apoyo-a-inmigrantes.htm(검색일자:2013.12.03)

http://embamex.sre.gob.mx/guatemala/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00:ganseg2013&catid=83:junio-2013&Itemid=199(검색일자:2014.02.23)

-인터넷 자료-

http://www.colef.net/emif/

http://www.colef.net/emif/tabuladossur.php

http://www.inegi.org.mx

www.cocef.org

www.nadbank.org

http://todoporellos.org.mx/sitio/

dCollection @ pufs

http://www.cdhfraymatias.org
http://www.inm.gob.mx/index.php/page/Grupo_Beta
www.oem.com.mx
www.bbcmundo.com
http://www.informador.com.mx/
http://www.hogardelamisericordia.org/
http://bibliotecadigital.conevyt.org.mx/colecciones/documentos/migracion/frontera_sur.pdf
http://www.libertad.org/la-tragedia-humana-de-la-inmigracion-ilegal-4946
(검색일자:2013.10.31)
http://www.explorandomexico.com/map-gallery/
www.mexicodiplomatico.org

Collection @ pufs

Migration and Bord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exican Border caused by migration

Kim, Minkyung

Department of Global Area Studies, Graduate School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South Korea

(Abstract)

Mexico is a country where all 3 types of migration - inmigration, emigration and transit - happen. After receiving so many migrants that came to Mexico only to pass through the Mexican border and territory in order to reach United States, the characteristics of Mexican border have been changed. Therefore, migration is an important factor on understanding about the Mexican border.

This study is an analysis about how migration caused the changes that Mexican borders have experienced so as to reveal its particular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To carry on with this purpose, this study takes the both borders of Mexico as case for study and then researches the transit points, the major cities where migration happens frecuently, the migration route and the finally changes that migration has been causing. The main method this study utilizes is literature investigation, among which articles from newspapers and some reports from related organizations were more useful than anything else.

This study found out 4 big changes that Mexican borders have experienced through the current migration situation. The first of all is that Mexico started cooperat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order to take control and assure the security over the borders. The northern

dCollection @ pufs

border has been being controll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But United States wanted to manage the southern border too, and that is why the southern border also started to become as closed and controlled as the northern one. In 1990, Mexico created the National Institute of Migration(INM: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and in 2001 started operating the South Plan(Plan Sur), becuase the "South" was the first step for the migrants who try to pass the Mexican territory in order to arrive in United States. With this plan, Mexico wanted to restrict ilegal migration by blocking the major transit points, started deporting ilegal migrants and attempted to reduce the rate of crimes committed around the border areas. Even after this South Plan was finished, Mexico still continues to deport the ilegal migrants. In an attempt to take control over the borders, Mexico has been cooperating not only with United States but also with Guatemala and Belize. Especially with Guatemala, Mexico has made the program called High Level Security Group(el Grupo de Alto Nivel de Seguridad, GASEG) so as to increase the safety around the border areas.

The second change is the level of danger that becomes higher every day, due to the crimes that migrants might face on their way. The migrants need some one who protects or helps them to cross the border avoiding the eyes of the authority, the possible dangers, etc. The helper, in this case, is called Coyote or Pollero. There are so many dangers and risks that migrants may encounter as they attempt to cross the border, such as severe climate, the river that they have to swim across, the organized crimes that specially target migrants, etc. Especially these crimes - including robbery, assault, rape, human traffic,etc - have been constantly multiplied. One of the most critical crimes is kidnapping, which often is involved in drug traffic where the victim should play the role of drug carrier. That is why the current drug traffic is very colsely related to the issues of the Mexican borders these days. The drug

dCollection @ pufs

traffickers operate their crimes in group by offering the migrants the safe trip meanwhile the migrants carry their drug with them to United States. Therefore, ilegal migration has increased the drug traffic between Mexico and United States.

The third change is the issues about human rights. The factors such as the control over the borders, the dangerous routes and crimes are related to these issues. Some civic group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volunteers have been helping the migrants by offering them shelters and food, protecting children and reporting the rape cases to the Mexican society. The Beta Group(el Grupo Beta) is one of them and is crea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Migration. Their main missions are searching the migrants through the majour routes, rescuing them, giving them first aid, etc. However, in spite of all these efforts, the level of violence to human rights is much higher than the help from these people.

The forth change is the transformation that happened to these border areas. Places like Chiapas in the southern border area and the Tamaulipas in the northern border area are now more populated than before with the migrants who originally planned to move to United States as they stay there to make some income. Several places on the frequent migration route inside the Mexican territory as well as the border areas also have been transformed in a similar way. Many crimes against migrants have been reported in places like Oaxaca and San Luis Potosí, which is why migrants nowadays choose to avoid these dangerous places and go through somewhat safer places like Guadalajara, Jalisco, Nayarit, Sinaloa, Baja California, etc.

These factors give the Mexican borders some special features. Firstly, the borders became the migration route. Mexican borders now are the passways through which central americans reach United States, their final destination. But routes can be changed or invented because of control from the authority, crimes, natural disasters, etc. The information

dCollection @ pufs

spread out by migrants also plays certain role in this. The new routes bring new features to the Mexican border situation.

The special thing about Mexican borders is that not only Mexicans but also central americans pass them to arrive in United States. The southern border, in this respect, is the first step for migrants to pass in order to get to United States.

However, the concept of passway isn't only a special thing about Mexican border areas, as migrants stay in Mexico around border areas or some other places on their way to United States just so they can make some money in the mean time and avoid the ever-more-increasing dangers. Therefore, Mexican borders are settlements and passways at the same time. This is why Mexican borders have the above-described 4 distinct characteristics that no other border does.

Collection @ pufs